

COUNTRY PROFILE

이 란

KEEI

COUNTRY PROFILE

이 란

차 례

I. 국가 개요	1
1. 일반 개요	1
2. 경제 개요	2
3. 에너지산업 개요	3
II. 이란 정치·경제동향	5
1. 이란 정치 동향	5
2. 이란의 경제 현황	23
III. 이란의 시장 특성 및 SWOT 분석	34
1. 시장 특성	34
2. 부문별 SWOT 분석	35
3.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38
4. 투자 유치 제도	39
IV. 이란의 산업 개관	41
1. 산업구조	41
2. 주요 산업 현황	42
V. 이란의 에너지 산업	47
1. 이란의 석유 산업	47
2. 이란의 천연가스 산업	58
3. 석유·가스부문 투자에 관한 이란의 사법 구조	72
4. 기타 광물자원	80
5. 전력	83
6. 재생에너지	89

Ⅵ. 이란 에너지 및 투자 관련 웹사이트	94
1. 이란 에너지정보 사이트	94
2. 이란 투자 관련 사이트	96
3. 이란 관련 뉴스 제공 사이트	96
참고 문헌	97

표 목 차

<표 1> 이란 국가 개요	1
<표 2>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3
<표 3> 이란의 에너지 주요 지표	4
<표 4>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내용 및 경과	7
<표 5> 미국의 대이란제재 전략이 갖는 딜레마	15
<표 6> 이란 석유·가스 부문 주요 투자 현황	17
<표 7> 유럽의 대이란제재 전략이 갖는 딜레마	19
<표 8>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3
<표 9> 이란의 총 수출입 추이	27
<표 10> 이란의 주요국별 수출(상위 10개국)	29
<표 11> 이란의 주요국별 수입(상위 10개국)	29
<표 12> 수출(상위 10개 품목)	30
<표 13> 수입(상위 10개 품목)	31
<표 14>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입 현황	32
<표 15> 주요 품목별 대이란 수출	32
<표 16> 산업별 GDP 기여도	42
<표 17> 이란의 주요 4개 유전의 생산량 추이	50
<표 18> 2015년까지 신규 원유 상류 프로젝트	52
<표 19> 이란 원유 정제능력(2008)	54
<표 20>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2007)	56
<표 21>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65
<표 22>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81
<표 23>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량 추이 및 전망	85
<표 24> 이란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WEC 2006)	89
<표 25> 이란의 주요 부지별 설치된 풍력터빈 수와 용량	90
<표 26> 이란 풍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90
<표 27> 이란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91

그림 목 차

[그림 1] 이란의 주요 수출 대상국	28
[그림 2] 이란의 주요 수입 대상국	28
[그림 3]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	47
[그림 4] 2008년 OPEC 원유생산	49
[그림 5] 석유생산 및 소비(1976~2007년E)	51
[그림 6] 이란의 에너지소비 구조(2006년)	53
[그림 7]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2009.1.1)	58
[그림 8] 이란의 사우스파스와 노스파스 가스전	63
[그림 9]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비롯한 주요 유·가스전 지도	66
[그림 10] 이란-파키스탄-인도 (IPI) 가스파이프라인	69
[그림 11]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70
[그림 12] 발전 및 전력 소비(1984~2006년)	84
[그림 13] 이란 만질 풍력단지의 연도별 발전량	91
[그림 14] 이란의 지열에너지 유망 지역	92

I. 국가 개요

1. 일반 개요

<표 1> 이란 국가 개요

국명	이란이슬람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위치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해 남부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경 동경 45-62도, 북위 26-39도
면적	165만 km ² , 한반도 면적의 7.5배
기후	대륙성 기후(4계절), 카스피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
수도	테헤란(인구 1,200만명)
주요 도시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쉬라즈
행정구역	30개 주: Ardabil, Azarbayjan-e Gharbi, Azarbayjan-e Sharqi, Bushehr, Chahar Mahal va Bakhtiari, Esfahan, Fars, Gilan, Golestan, Hamadan, Hormozgan, Ilam, Kerman, Kermanshah, Khorasan-e Jonubi, Khorasan-e Razavi, Khorasan-e Shomali, Khuzestan, Kohgiluyeh va Bowyer Ahmad, Kordestan, Lorestan, Markazi, Mazandaran, Qazvin, Qom, Semnan, Sistan va Baluchestan, Tehran, Yazd, Zanjan
민족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안 1%
언어	이란어(Farsi)
종교	회교 시아파 94%, 회교 수니파 4%
독립	1979년 4월 1일(이란 이슬람공화국 선포)
헌법	1979년 12.2~3 제정, 1989년 개정(동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확대)
정부형태	정교일치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중심제
국회	단원제(290석, 임기 4년)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지도자: 하마네이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1989년 6월 4일 - 임기: 종신 •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선: 2005년 8월 3일, 2선: 2009년 6월 12일 - 임기: 4년

자료: KOTRA 2009, CIA, 2009.5.

2. 경제 개요

- 2004~2006년에는 이란 경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농업·건설업 등 비석유부문의 점진적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
- 2007~2008년에는 UN 안보리, 미국 및 EU의 제재 강화, 미국발 금융 위기,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교역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평균 7.2%를 기록함.
- 그러나 2009~2010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150만b/d) 및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 2009년 GDP 성장률은 EIU(2009.8) 전망 기준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지는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2007~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7년 17.1%, 2008년 25.5%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 등은 핵 협상의 미해결로 수입액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 한국과의 교역 동향에서 2008년 대이란 수출은 2007년 대비 33% 증가하였음. 이러한 호조세는 유럽 업체들의 대이란 거래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약 8억 달러에 달하는 선박 인도분에 힘입은 바 크며, 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철강판 및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완성 승용차 수출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영향이 큼.

<표 2>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US\$ 십억)	156.8	189.3	222.9	286.1	337.3	359.9
실질 GDP 성장률(%)	5.1	4.7	5.8	7.8	6.5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4.7	13.4	11.6	17.1	25.5	16.8
인구(백만 명)	68.7	69.4	70.3	71.2	72.1	74.2
상품수출(US\$ 십억)	43.9	64.4	76.1	97.4	93.4	67.5
상품수입(US\$ 십억)	38.2	43.1	50.0	56.5	67.2	55.8
경상수지(US\$ 백만)	1,442	16,637	20,402	34,081	14,942	1,124
외환보유고(US\$ 백만)	32,959	45,459	58,459	82,059	96,559	81,309
외채(US\$ 십억)	20.4	21.3	20.1	21.0	21.9	19.0
평균환율(US\$ 1당 IRR)	8,614	8,964	9,171	9,282	9,429	9,900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전망치
 자료: EIU(2009.8)

3. 에너지산업 개요

- 이란은 세계 총 원유매장량의 11.4%, 세계 총 가스매장량의 15.5%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2위의 원유·가스 보유국임. 그러나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하에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란은 현재 성숙단계 유전에서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란이 현재 원유 생산능력인 약 400만b/d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임.
- BMI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이란 발전시설용량은 51GW으로 203TWh의 전력을 생산, 이 중 182TWh가 소비됐음. 이란의 발전연료는 주로 가스, 석유, 수력이 주를 이루며, 각각 76%, 14%, 10%를 차지함.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표 3> 이란의 에너지 주요 지표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원유 확인매장량 (2008)	1,362억 배럴 (세계의 약 11%)	발전설비용량 (2008)	51 GW
원유생산량 (2008)	약 400만 b/d (세계의 약 5%)	발전연료 비중 (2008)	가스 76%, 석유 14%, 수력 10%
원유소비량 (2007)	170만 b/d	전력소비량 (2008)	203 TWh
원유 수출 (2007)	240만 b/d (세계 4위)	전력소비량 (2008)	182 TW
원유 수출수입(收入) (2007)	570억 달러 (이란 총 수출수입의 85%)	전력수요증가율 (2000년 이후)	연 7~9%
원유정제능력 (2008)	150만 b/d (국내소비 휘발유의 40% 수입)	전력소비 부문	공업 34%, 가정 32%, 상업 18%, 농업 12%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2008)	948 Tcf (세계의 약 16%)	풍력발전설비용량 (2006)	47.58 MW
천연가스 생산량 (2008)	5.77 Tcf (세계의 약 3.8%)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용량 (2006)	53 MW
천연가스 소비량 (2007)	3.9 Tcf	지열설비용량 (2006)	55 MW

II. 이란 정치 · 경제동향

1. 이란 정치 동향¹⁾

□ 이란 정치제도의 특성

- 1935년까지 페르시아(Persia)로 알려져 있었던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 팔레비 왕조가 물러나고,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슬람 성직자 주도 신정정치(theocracy) 구현해 옴.
 - "벨라야티 파키"(Velayat-e Faqih :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s, 최고 성직자에 의한 통치)라는 통치이념에 따라 이슬람교와 민주공화제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수립하고 있음.
-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 아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회의,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등 헌법수호기관이 있음
 - 최고지도자는 외교안보, 군, 정보기관,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해임 및 국정조정회의의장 · 사법수장 · 헌법수호위원회위원 임명권 등을 행사함. 현 최고지도자인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는 제2대 최고지도자로서 초대 최고지도자인 Ayatollah Ruhollah Khomeini 사망 후 1989년 6월 취임함.
 - 삼권분립형 공화제적 기관에 추가로 헌법수호위원회, 국정조정회의, 국가지도자 운영위원회, 혁명수비대 등 이슬람 가치 수호를 위한 기관이 병존하고 있음.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 ·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3회 이상 연임 불가함(2회 연임 후 쉬었다가 재차 출마 가능). 대통령은 부통령(10명), 장관(21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함.

1) 주 이란 대사관, 2009; KOTRA, 2009; CIA,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임진호, 2009; 인남식, 2009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은 국회의 개별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되며,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함(부통령은 국회인준 불필요).
- 국회(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Majlis)는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된 의원(290명, 임기 4년, 단원제)으로 구성되며, 현 국회는 제8대 국회임(2008.3월 선거, 2008.6월 개원).
-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일종의 상원 역할 수행)의 비준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함. 입법 과정에서 국회-헌법수호위원회 간 의견이 대립될 경우, 국정조정위원회의 중재 및 최종 결정으로 확정함.
- 사법 정책 및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슬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형법과 가족법이 특히 이슬람의 원칙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현 사법부 수장은 Ayatollah Seyyed Mohmood Hashemi Sharoudi(최고지도자가 임명, 임기 5년)가 맡고 있으며, 재판 제도는 민사·형사 재판을 구분하고 있고, 초심·항소심·최종심의 3심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 재판소와 별도로 군사재판소, 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마약재판소 등 특수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성직자재판소는 사법부와 독립하여 존재함(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따름).

□ 이란의 대내외 정책 기조

- 자주적 핵 기술 개발과 대 팔레스타인 지원 등을 앞세워 독자적 지위 추구하고 국내외 서민층의 지지기반 확보
 -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의 지속을 통한 자주적 핵연료주기 확보
- 국제적(미국, UN) 제재상황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강국(region power)으로서의 위상 확보
- 에너지 개발, 기타 기간산업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국영 기업 민영화 추진 중

□ 핵 프로그램의 강력 추진

- 이란 핵 활동의 기본목표는 독자적인 핵연료주기의 확보에 있음.
 - 우라늄 농축 등 핵활동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보장된 권리이자 불가양의 민족적 권리로서 유엔이나 서방이 요구하는 핵활동 중단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란은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원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슬람 교리나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독일(P5+1)로 대표되는 서방과 IAEA와의 원칙적 대화의사 표명하고 있으나, 서방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는 거부하고 있음. 이에 서방은 대화와 압박 병행전략(dual track approach)에 따라 3 차례에 걸친 유엔 경제 제재(2006년 12월, 2007년 3월, 2008년 3월), 미국 및 EU 의 단독 제재(주로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음.

<표 4>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내용 및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06.1.10	이란, 핵 활동 재개 결정
2006.3.29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관련 의장 성명 채택
2006.4.11	이란, 핵 기술 보유국 공식 발표
2006.7.31	UN 안보리, 이란 핵문제 결의안 채택 - 8.31까지 핵 농축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촉구 및 결의안 이행 거부 시, UN 헌장 제 7조 41항에 의거 제재조치
2006.9.8	미 재무부, Bank Saderat을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
2006.12.23	UN 안보리, 1차 對 이란 핵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37호) - 이란의 핵 활동 즉각 중단 재 요구, 11개 단체와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 모든 UN 회원국의 핵, 미사일 관련 품목, 물질, 기술의 이란 판매 및 이전 금지
2007.1.9	미 재무부, Bank Sepah를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

일자	주요 내용
2007.3.24	UN 안보리, 2차 對 이란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747호) - 1차 제재안 대비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대상 추가 지정(Bank Sepah 등 10개 기관 및 동 은행장 등 18인) - 모든 국가 및 금융기관은 이란 정부에 대해 인도적 및 개발지원 목적을 제외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약정 금지
2007.10.25	미국, 對 이란 추가제재 발표 - 이란 혁명수비대, 3개 국영은행(Bank 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에 대한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 - 해외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제재대상과의 거래 중단 요구
2008.1.22	UN 안보리, 3차 對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1803호) - 1~2차 제재안의 연장선상으로 여행금지 및 제한,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무인 자동항공수단 관련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 수출신용 및 이란은행(특히 Bank Melli, Bank Saderat)과의 거래 시 주의 촉구 등 제재수위 강화
2008.6.16	영국, 對 이란 추가 제재 발표 - Bank Melli를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
2008.6.23	EU, 對 이란 제제조치 합의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 추가지정(이란혁명수비대 장군 등 개인 15명, Bank Melli 등 기관 20개)
2008.11.10	미국, 금융기관의 이란 관련 자금거래 금지 - 그동안 Bank Melli, Mellat, Sepah, Saderat, EDBI 등 5개 국영은행만이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은행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됨.
2009.3.12	미국, 이란 제제조치 연장 -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테러리즘과 대량과괴무기 (WMD) 확보 노력을 이유로 이란 제제조치를 연장함.
2009.10.14	미국 하원, 추가적 이란 경제제재법안 통과 -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2,000만 달러(약 23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이 업체에 자금을 투입한 주·지방정부와 연금 펀드들로 하여금 즉각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9.3; AFP, 2009.3.12; AFP, 2009.10.14

- UN 총회는 이란 측에 2009년 9월 말까지 우라늄 농축에 관한 타협안에 회신하도록 기한을 주었으나, 이란 대통령은 동 기한을 넘어서도 우라늄 농축에 관한 이란의 권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란과 서방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
 - 이란 대통령은 IAEA와의 정례 회담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IAEA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란은 핵탄두 설계계획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음.
 -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에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 원자로에 대해 접근하는 것과 나탄즈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2건의 양허권을 주었다고 밝힘. 그러나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담보상태에 있음. IAEA는 이란이 농축 관련 활동이나 중수로 관련 프로젝트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IAEA 추가협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란은 2009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린 이란과 서방 간의 회의에서 이란 측은 IAEA가 상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서방과의 화해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였음.
 - IAEA ElBaradei 위원장은 10월 초 최근 밝혀진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10월 25일 방문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란이 상기 시설을 외부의 감시에 개방하기로 한 결정은 이란 핵프로그램의 의도와 범위에 대한 서방의 비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임.
 - 10월 19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및 이란 간에 회담에서는 이란이 우라늄을 러시아로 보내 20%까지 농축한 후 다시 이란으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러한 방안은 이란이 농축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진정시키면서 의료용 및 민수용 핵물질을 이란에 제공할 수 있게 함. 핵무기는 최소 90% 농축이 필요함.

- 그러나 2009년 10월 19~21일 오스트리아 빈 협상에서 이란과 'P5+1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독일)'이 도출한 핵 합의안을 이란이 전면 거부(2009.11.18)하면서, 'P5+1'은 이란 제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회동하였음.
- 상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대표들 간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안은 이란의 3.5% 농축 우라늄 75%(1,125kg)를 연말까지 러시아로 보내 농도 20%의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프랑스로 옮겨 의료용 원자로 가동을 위한 연료봉으로 제작, 이란에 돌려주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 모타키 외무장관은 2009년 11월 18일 농축우라늄을 반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 내에서 핵연료와 동시에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기 협상안 거부를 공표하였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19일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서방국가와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그 다음날 20일에는 유럽연합(EU) 외교정책위원회 주도로 'P5+1'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음.

□ 지역강국으로서 위상 확보

- 이란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일한 비아랍국가이며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로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수파(minority)이지만, 이집트보다 많은 7천만 인구와 한반도의 7.5 배에 이르는 영토를 가진 대국임.
- 이란인들은 과거 페르시아 문명과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전통적으로 자국을 지역 강국(regional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서부, 타지키스탄 등 페르시아어 사용 지역 외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 등 과거 영토를 아직도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 내 치안불안 등으로 인한 지역 권력의 공백을 매우면서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란은 이슬람권의 단합, 반미 및 반 이스라엘 연대 구축,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경제 협력 위축 방지를 추구해 가면서, 지역 안정자(마약퇴치, 대테러 활동 등)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아프간 및 이라크 안정화와 관련, 지역적 안정자의 이미지를 강조해 나가고 있으며, 아프간 카르자이 행정부 및 이라크 말리키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긴밀한 협력을 표명하고 있음.

□ 이슬람 체제 안정 추구

-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호메이니의 출산장려정책으로 30 세 이하의 총 7천만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
-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정부기관들은 25.5%라고 발표), 고실업,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와 현대 사회에 대한 동경심 등이 현 이슬람 체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비효율적 국영기업(총기업의 80%수준) 위주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각종 국가 보조금 철폐, 투자유치 노력 강화 등의 경제개혁을 추진 중임.
- 이란 최고지도부는 핵기술의 확보를 추구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구조 개선, 정치 세력 간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음.

□ 이슬람 대선 (2009.6.12) 이후 정국 동향

- 지난 6월 12일 대선 결과, 선거 이전에는 박빙의 승부로 2차 투표를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이 62.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고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집권기의 경제난

으로 당선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보수성향의 표가 결집되고 강세 지역인 시골, 소도시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재선에 성공하였음.

- 이에 반해 개혁파 무사비 후보는 실제 선거 전까지만 해도 자체 조사를 통해 65%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신하였지만 선거에서 33.8%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에 크게 뒤지는 모습을 보여줬음.
 - 지난 3월 개혁파의 기수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이 개혁파 내 단일화를 위해 출마를 포기한 이후 개혁파의 선두주자로 나선 무사비 후보는 상징색인 녹색 열풍을 일으키며 대도시와 중산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지만 결국 당선에 실패하였음.
-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가 현직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자 무사비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였음. 무사비는 자신의 강세지역인 타브리즈, 시라즈 등 주요 도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많은 이들이 투표를 못하고 일부 개표소에는 참관인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 공정 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음.
- 무사비는 헌법수호위원회에 이번 대선 결과를 무효화 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였고 지지자들에게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시위를 전국적으로 지속하라고 당부하였음. 지지자 수천여명도 테헤란 거리로 나와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과의 충돌도 계속되었음.
 - 선거 후 2주간 경찰과 민병대가 최루가스과 곤봉을 이용하여 반정부 시위를 강경진압하면서 7월말까지 3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 사태가 격화되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패배한 후보들과 지지자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호소하였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도 당선이 확정된 뒤 이번 대선은 자유롭고 건전한 선거였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한 뒤 모든 사람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진화에 주력하였음.

- 지난 6월 29일, 이란의 종교지도자와 이슬람 율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는 대선 낙선자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전체 투표함의 10%에 대해 부분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부정 사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 대선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불안한 동거와 균형이 전망되고 있음. 개혁과 진보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도 이슬람 신정주의 체제의 해체를 바라지는 않음. 결국 어느 한쪽의 붕괴와 패퇴를 통한 완승을 추구하다가는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바, 긴장 속에서의 협력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이에 이란 신정주의의 강건한 구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임. 그러나 이번 대선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변화를 갈구하는 민의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명분을 얻어가며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현재 이란 정부는 의회의 보수세력 도움으로 안정된 리더십을 갖춰가고 있음. 2009년 9월 3일에 열린 장관 내정자 21명에 대한 의회 인준 표결에서 대부분 의회인준이 통과되면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회복하였음. 비록 3명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었지만 석유, 내무, 외무, 국방 등 핵심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모두 인준이 통과됨으로써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고, 서방과의 핵협상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었음.

□ 이란의 대외 관계

① 미국

- 1979년 회교혁명 및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1980년 4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음.
- 1998년 1월 하타미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 촉진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 간 민간 교류가 다소 활성화 됐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이란 제재 완화로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01년 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3월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조치가 갱신되고 2001년 7월 이란 및 리비아 경제제재법이 연장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담보 상태에 접어들었음.
- 2001년 9.11 테러 사태와 관련, 하타미 대통령이 테러 행위를 즉각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축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양국 간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적하고 2002년 3월 핵 정책 보고서에서 이란이 7개 핵 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이 어려운 상태로 반전됐음.
-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이란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이라크전 종료 후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재건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춰지기도 했으나 2005년 8월 보수강경 노선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으로 이란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
- 2008년 10월 미국정부는 테러지원협회가 있는 탈레반,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장테러 세력에 대한 지원 협의를 물어 국방부, 이란혁명수비대 및 4개의 금융기관(Melli Bank, Mellat Bank, Saderat Bank, Kargoshaee Bank)에 대한 대달러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급기야 미국 금융기관의 모든 대이란관련 자금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음. 이는 역대 미국이 대이란에 대해 취했던 경제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9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시 전임 정부의 ‘이란과의 직접 대화 불가’라는 금기를 깨고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다자간 협회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음.
 - 이란 정부도 미국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성명을 내놓았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시설 거점인 이스파한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이 내민 손이 진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란 국민은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대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9년 5월 20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사정거리에 들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미국과의 화해 여지가 크게 축소되었음.
- 2009년 8월 4일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가 이란이 계속해서 자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휘발유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9년 10월 14일 미국 하원은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음. 찬성 414 대 반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동 법안은 미국 회사가 이란의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2,000만 달러(약 23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이 업체에 자금을 투입한 주·지방정부와 연금 펀드들로 하여금 즉각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10월 15일에는 미국 상원이 이란에 석유를 판매하는 기업이 정부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음.

<표 5> 미국의 대이란제재 전략이 갖는 딜레마

- 미국은 2009년 9월 말까지 이란이 자국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이란 제재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나, 이란은 결국 핵협상을 강경하게 거부하였음. 이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임.
-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9년 9월 3일 국제사회가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강대국이 내세운 대화 복귀 시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음.
- 이란 대통령의 강경발언 이후 미국 의회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이란 제재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이 계속 자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휘발유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이란은 자국 휘발유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이란은 만약 자국에 대한 휘발유수입 금지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서방국가로의 원유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음.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통과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페르시아만 연안의 여러 항구로부터 1,700만b/d 규모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서방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깊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이란과의 대화 대신 제재 쪽에 무게를 두면 부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제재조치 대신 대화 쪽에 무게를 두면 대이란 강경세력의 불만이 더욱 커짐과 동시에 미국에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정권 재집권에 성공한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

- 미국의 강경세력 및 이란 제재강화에 찬성하는 우방국들은 일련의 대이란 협상 실패를 놓고 부시 정부의 전략으로 회귀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중동전략이 '이라크 내 혼란',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불확실성,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마비, '이란과의 전쟁가능성 증대' 등을 초래했음을 비난하며 부시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부임.

-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9년 6월 대선 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리더십에 일부 손상을 입었으나, 2009년 9월 3일에 열린 장관 내정자 21명에 대한 의회인준 표결에서 보수세력의 도움으로 대부분 의회인준이 통과되면서 리더십을 회복하였음. 비록 3명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었지만 석유, 내무, 외무, 국방 등 핵심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이 모두 인준을 통과함으로써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고, 서방과의 핵협상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었음.

- 이란은 보수세력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에 대한 대이란 제재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처럼 경제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안에 따라 이란 에너지부문에 연간 총 \$2,000만 이상

의 투자를 한 외국기업에 미국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적이 없음.

- 현재는 외국기업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미국 정부가 유감성명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있음. 최근 석유·가스 부문(정제·석유화학 플랜트 제외)에서 중국 CNPC와 \$50억 규모(South Pars 11단계, '09.6), 이탈리아 Tecnimont와 \$20억 규모(South Pars 12단계, '09.7), 한국의 대림산업과 \$20억 규모(South Pars 12단계, '09.11)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기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가해 지지는 않고 있음(아래 <표 6> 참조).

<표 6> 이란 석유·가스 부문 주요 투자 현황¹⁾

년/월	지역	기업	계약규모	생산목표
1999.2	Doroud(oil)	Totalfina Elf(프랑스)/ENI(이탈리아)	\$10억	205,000b/d
1999.4	Balal(oil)	Totalfina Elf/Bow Valley(캐나다)/ENI	\$3억	40,000b/d
1999.11	Soroush and Nowruz(oil)	Royal Dutch Shell	\$8억	190,000b/d
2000.4	Anaran(oil)	Norsk Hydro(노르웨이)/Lukoil(러시아)	\$1억	100,000b/d (2010년까지)
2000.7	South Pars 4, 5 단계(gas)	ENI	\$19억	20억cf/d
2001.3	Caspian Sea	GVA Consultants(스웨덴)	\$2억2,500만	-
2001.6	Darkhovin(oil)	ENI	\$10억	160,000b/d
2002.5	Masjid-e-Soleyman(oil)	Sheer Energy(캐나다)	\$8,000만	25,000b/d
2002.9	South Pars 9, 10 단계(gas)	LG(한국)	\$16억	20억cf/d
2002.10	South Pars 6, 7, 8 단계(gas)	Stateoil(노르웨이)	\$26억5,000만	30억cf/d
2004.1 (2009.1)	Azadegan(oil)	Inpex(일본)	\$2억(Inpex)	260,000b/d

년/월	지역	기업	계약규모	생산목표
		CNOC (중국, 2009.1)	\$17억6,000만 (CNOC)	
2004.8	Tusan Block	Petrobras (브라질)	\$3,400만	-
2004.10	Yadavaran(oil)	Sinopec(중국)	\$20억	185,000b/d (2011년까지)
2006.6	Gamasar bloc(oil)	Sinopec(중국)	\$2,000만	-
2006.9	Khorramabad block(oil)	Norsk Hydro (노르웨이)	\$4,9000만	-
2007.12	Golshan and Ferdow onshore and offshore 가스전 & LNG 시설	SKS Ventures (말레이시아)	\$160억	34억cf/d
2009.6	South Pars 11단계(gas)	CNPC(중국)	\$49억	-
2009.7 (2009.11)	South Pars 12단계(gas)	Tecnimont (이탈리아)	\$20억	28억cf/d
		대림산업(한국)	\$20억	

주 1) 이 표는 석유가스 부문에서 \$2,000만 이상의 투자계약만 정리; 단, 정제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 투자는 포함하지 않음.

② 유럽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EU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나 경제 문제는 독자노선을 추구,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이란 관계 강화에 적극적임.
 -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회교혁명 후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99년 3월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음.
- EU는 정기적으로 이란과 Troika(현재, 과거, 향후 EU 의장국) 회담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이란 투자와 신용 공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3차에 이르는 UN의 대이란 경제제재 및 미국발 경제제재로 인해 대이란 투자 및 자금융자 등이 답보 상태에 있음.

- EU와의 관계 강화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 이후 이란의 핵 활동 재개와 관련해 IAEA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나 동 문제와 관련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6월 EU는 이란 Melli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과 개인의 유럽 내 자산을 동결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EU의 대이란 제재조치는 2007년 2월 및 4월에 각각 채택된 EU 공동입장 및 규정(Regulation)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여 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개인 15명, 기관 20개)을 추가하는 것임.

<표 7> 유럽의 대이란제재 전략이 갖는 딜레마²⁾

- 이란과의 직접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대신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05년부터 이란과 한편으로는 핵협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 이란의 핵개발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장 위협적이나,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유럽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들 유럽국가들은 이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개발을 중지하도록 하는 협상을 3년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
 - 거듭된 협상실패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미국과 공동으로 취하고 있음.
-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는 비용을 수반하고 있음.
 - 미국기업의 이란진출 금지법안 덕분에 유럽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이란

2) 박복영, 2008.

-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았는데, 최근의 강화된 경제제재 조치 때문에 유럽기업의 이란 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포기가 이어지고 있음.
- 유럽국가들은 이란과의 이런 경제적 관계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계속 강화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
 - 한편 유럽국가들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이란을 새로운 공급처로 활용하고 싶어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대립관계 때문에 에너지분야 협력은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되는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천연가스 분쟁 이후 가스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취약해진 상태임.
 - 유럽은 가스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의 LNG(액화천연가스)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강대국인 이란은 가장 유망한 신규 공급국 중 하나임.
 - 하지만, 미국이 이란 에너지부문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여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럽의 천연가스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 2008년 3월 스위스 에너지기업인 EGL은 이란에서 25년간 천연가스를 장기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스위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유사한 계약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바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이란산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국 유럽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에너지분야 진출과 새로운 천연가스 도입원의 확보를 위해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는 딜레마 상황에 있음.

③ 아시아

- 이란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관계의 기본 축을 EU 및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관계 강화로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이란은 경제 회복에 있어 동북아 3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2000년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바 있음.
- 이란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란 핵 문제가 IAEA 등 국제사회에서 핫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중국과 상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는 이란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6월 3일 개발비용이 \$47억 규모로 추산되는 이란의 사우스파스 가스전 11단계 개발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음.
 - 사우스파스 11단계는 프랑스 토탈이 개발하기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미국 및 EU의 경제재제 가능성에 대한 토탈의 우려로 18개월 동안 협상이 지연되었음.
 - NIOC는 6개월 전 사우스파스 11단계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40% 지분을 가진 토탈에 최후통첩을 보내 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CNPC와 협상을 시작했음. CNPC와의 6개월간의 협의 결과 사우스파스 가스전 11단계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음. NIOC는 토탈이 11단계 및 파스 LNG 프로젝트의 하류부문에 있어서는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힘.
 - NIOC와 CNPC는 현재 체결한 계약이 가계약인 점을 양해하였으며, 동 프로젝트에서 CNPC 지분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CNPC는 11단계 LNG 수출 옵션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원유수출 형태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고 있음.

- 한국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한국산 수입승인을 규제하는 등(2006년 1월 완전 해제)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었으나, 2006년 들어서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5월 발효된 데 이어 7월에는 2002년 이후 중단되어 왔던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교역, 에너지, 산업 협력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음.
- 1962년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³⁾ 1970년대 이란 내 각종 건설공사 참여 등 중동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 이란 진출하였고, 양국관계 발전의 기반이 확보되었으며,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양국은 우호관계 상징으로 1977년 서울과 테헤란에 각각 '테헤란로'와 '서울로' 지명 교환에 합의함.
- 1979년 이슬람혁명 후 양국관계가 소원하여 1981~1989년간 대사대리급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슬람혁명 및 이란-이라크 전쟁(1980~88) 등을 계기로 대다수 서방 기업이 철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는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인 원유도입 등과 더불어 경제협력관계 증진의 계기가 됨.
- 1989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료 후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기업은 전후 복구사업과 이란 경제개발계획에 참여, 양국 간 건설, 통상 협력이 확대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양국 경제협력관계는 이란의 산업화 추진과 연계되어 산업협력의 형태로 발전·고도화되었으며, 우리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이란은 우리의 주요 원유공급국으로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됨.
- 현재 한국은 EU, 중국,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이란의 4대 무역 파트너임. 이란은 강경한 대미, 반미, 일반적인 반서방 정책 성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란 국민들은 우리 국민과 문화에 친밀감과 우호감을 보이고 있음(주이란 대사관 홈페이지).

3) 1962.10.23 국교 수립; 1967.4.1 주이란 한국 대사관 개설; 1975.8.25 주한 이란 대사관 개설; 1981.7월 양국 대사대리급 관계로 변경; 1989.1월 양국 대사급 관계 회복

2. 이란의 경제 현황⁴⁾

□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표 8>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US\$ 십억)	156.8	189.3	222.9	286.1	337.3	359.9
실질 GDP 성장률(%)	5.1	4.7	5.8	7.8	6.5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4.7	13.4	11.6	17.1	25.5	16.8
인구(백만 명)	68.7	69.4	70.3	71.2	72.1	74.2
상품수출(US\$ 십억)	43.9	64.4	76.1	97.4	93.4	67.5
상품수입(US\$ 십억)	38.2	43.1	50.0	56.5	67.2	55.8
경상수지(US\$ 백만)	1,442	16,637	20,402	34,081	14,942	1,124
외환보유고(US\$ 백만)	32,959	45,459	58,459	82,059	96,559	81,309
외채(US\$ 십억)	20.4	21.3	20.1	21.0	21.9	19.0
평균환율(US\$ 1당 IRR)	8,614	8,964	9,171	9,282	9,429	9,900

주: 2008년은 추정치, 2009년 전망치

자료: EIU(2009.8)

□ 국내 경제 및 정책

① 2004년 이후 견고한 성장, 2009년부터 경기성장 둔화⁵⁾

- 2004~2006년 이란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 농업·건설업 등 비석유부문의 점진적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
- 2007~2008년에는 UN 안보리, 미국 및 EU의 제재 강화, 미국발 금융위기,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교역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은 평균 7.2%를 기록함.
- 그러나 2009~2010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150만b/d) 및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석유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

4) KOTRA, 2009; 한국수출입은행, 2009.3.

5) KOTRA, "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안 준비 중", 2009.3.16.

악화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2009년 GDP 성장률은 EIU(2009.8) 전망 기준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임.

②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그동안 GDP 대비 평균 3.6%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06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7.2%까지 확대된 바 있음.
- 2009~2010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의 타격을 받아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각각 4.8%,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③ 인플레이 우려 고조

- 2004~2006년 소비자물가는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따라 진정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7~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동성 확대,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서 2007년 17.1%, 2008년 25.5%를 기록하였음.
- 현 정부는 석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 OSF)의 자금인출 제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고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원재료 및 부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하여, 동국의 고인플레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④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의 경제정책

- 국내 경제정책의 기조는 사회 경제적 정의와 지속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 방향은 정부, 공기업의 부패 청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산업에 편중된 성장보다는 극빈층·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경제, 농업 등 낙후 부문의 균형적 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전임 하타미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보수적 최고권력층과 이미 의회를 장악한 보수파가 외국자본 등을 활용한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고실업, 고율 인플레이로 압박을 받고 있는 민생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의 체제유지 정책을 지속해 왔는데,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는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생 위주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대기업 등 일부 재벌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민간 중소기업 진흥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 국영 내지 국가 통제 체제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용자와 민간 생활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 경제 개발은 2005년 3월 21부터 시행된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 석유 수입 배분구조 개선, 빈곤층 소득 증대 및 물가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재정의 주수입원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부 세력의 기득권화, 외국자본의 과중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관리 강화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 시 자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장 폐쇄적인 조치들이 외국 상품의 이란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또한, 휘발유, 밀가루 등 기초 생필품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비대한 공공부문은 자원낭비 및 자원분배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 사회에 만연된 부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외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일고 있음.
- ⑤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
- 이란의 기존 세금제도는 상품·서비스 판매 시 간접세를 징수하지 않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들이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임.
 - 사업자의 편법적 세금회피 관행이 만연해 국가재정에 손실이 많았음.

- 이란의 부가가치세(VAT)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 논란이 지속돼 왔던 쟁점인데, 2008년 6월에 정부와 국회 간의 많은 논의를 거쳐 마침내 합의하고 국회에서 비준하였음.
- 2008년 9월 22일에 VAT제도 시행을 발표했으나, 발표 직후 테헤란·이스파한·마샤드·타브리즈·쉬라즈·케르만 등 각지의 상인조합이 상점을 폐쇄하고 항의 데모 등 집단행동으로 저항함에 따라 협상 끝에 6개월 동안의 시행유보를 결정함.
- 6개월 후 정부는 VAT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만 세관과 정부기관만이 VAT를 부과하기 시작함.
 - 모든 수입업자와 매출액 30억 리알(약 3억 원)의 대형 유통업체에만 부가세를 부과함.
 - VAT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기업인들의 저항, 사전검토 통보 지체, 기업가와 무역업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인프라 부족, 면세품목에 대한 불명확한 제도 및 실제와 동떨어진 산정 시스템 등이 있음.
- 이란 정부는 2009년 9월 23일부터 VAT제도 시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음.
 - 수입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외에 많은 사업 분야를 추가함.
 - 세율 : 3%(부가세율 1.5%와 지자체 부가세율 1.5%)
 - 특별세율 적용품목 : 담배 및 연초류(12%), 석유(20%)
 - 면세품목 : 고기, 밀, 빵, 설탕, 쌀, 곡물류, 우유, 치즈, 유아식품, 대중교통, 출판, 은행, 공항설비, 의료서비스, 약, 가축사료 및 비료, 농약 등
- VAT 적용 분야로는 무역업자, 공장소유주, 광업, 회계법인, 컨설팅서비스, 민간교육기관, 호텔(3성급 이상), 컴퓨터관련 서비스, 판매대리점, 산업복합체, 운송 및 화물서비스, 엔지니어링회사 등임.

- VAT제도 시행 발표 이후, 수많은 기업인이 운영방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반면, 정부에서는 2010년 10월 이전에 소매업까지 포함해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앞으로 VAT제도 시행을 통해 세제를 간소화하고 탈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정부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매년 가중되는 재정적자 및 원유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경제개혁조치 강행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

□ 대외 거래

① 이란의 총 수출입 추이

<표 9> 이란의 총 수출입 추이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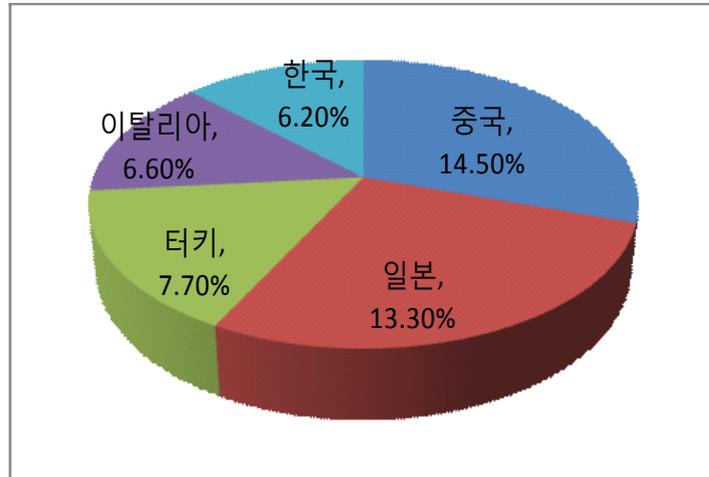
구분	연도		
	2005	2006	2007
총 수출	76,055	97,401	93,374
총 수입	50,020	56,582	67,246
무역수지	26,035	40,819	26,128

주: 2008년은 추정치, 자료: EIU, 2009.4(KOTR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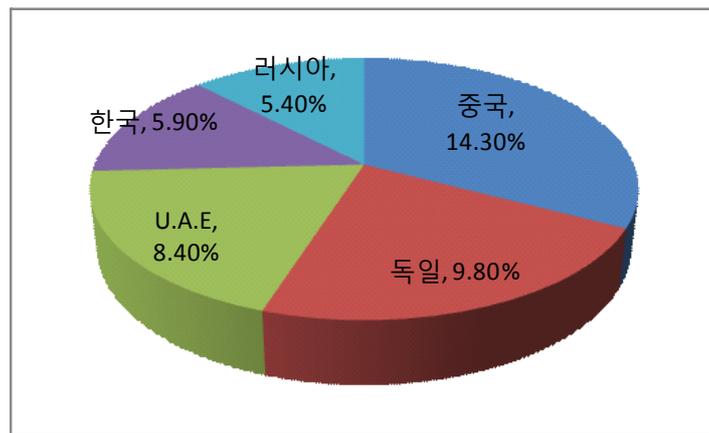
② 주요국별 수출입

- 주요 수입국 중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 등은 핵 협상의 미해결로 지속적인 수입액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 이란의 경우 수출입 통계가 평균 2년 정도 지나 발표되기 때문에 EIU의 2007년 통계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였음.

[그림 1] 이란의 주요 수출 대상국



[그림 2] 이란의 주요 수입 대상국



○ 아래의 표에서는 이란 관세청에서는 상품 및 국가별 수출입 실적에 원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기 순위와 차이가 있음.

<표 10> 이란의 주요국별 수출(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순위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1	아랍에미리트	1,544,618	1,728,113	2,166,019
2	이라크	1,223,966	1,791,570	1,842,418
3	중국	529,055	1,052,996	1,243,523
4	일본	538,501	664,022	926,838
5	인도	763,755	836,643	837,474
6	터키	204,712	326,075	565,729
7	한국	149,857	230,646	551,950
8	아프가니스탄	497,074	514,588	542,923
9	이탈리아	245,752	645,401	522,187
10	독일	356,196	358,673	373,947
총 수출액		10,474,293	12,996,912	15,312,277

주 1: 상기 수출통계는 석유수출 제외 실적

주 2: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월 21일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임.

자료: 이란 관세청 수출입통계, 2009년 9월 현재 통계(KOTRA, 2009)

<표 11> 이란의 주요국별 수입(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순위	국가	연도		
		2005	2006	2007
1	아랍에미리트	7,683,002	9,349,477	11,508,699
2	독일	5,164,808	5,076,002	5,327,579
3	중국	2,204,314	2,752,821	4,292,469
4	스위스	1,273,639	2,289,381	2,779,402
5	한국	2,135,987	1,949,127	2,456,020
6	영국	983,374	1,439,611	2,002,404
7	이탈리아	2,361,335	1,716,937	1,902,204
8	프랑스	2,679,745	2,192,206	1,894,191
9	인도	1,114,915	1,440,215	1,457,331
10	일본	1,310,912	917,183	1,325,115
총 수출액		39,247,582	41,722,646	48,438,819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월 21일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임.

자료: 이란 관세청 수출입통계, 2009년 9월 현재 통계(KOTRA, 2009)

③ 주요 품목별 수출입

- 이란의 주 수출품목은 석유이지만, 이란 정부는 수출 통계 발표 시 원유 수출을 제외하고 발표함.
- 수출 1위 품목은 피스타치오(Pistachio)인데, 이란의 피스타치오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피스타치오보다 크기가 크고 상품성이 높아 이란의 주요 국부 창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 수입 1위 품목은 휘발유(Gasoline)로서 이란의 정제산업이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현재 이란은 자국 휘발유 소비량의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표 12> 수출(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	연도		
		2005	2006	2007
1	Pistachio	816,789	1,072,659	1,263,929
2	Propane, Liquefied	318,324	670,236	971,363
3	Methanol(Methyl alcohol)	232,127	186,893	632,724
4	Butanes, Liquefied	168,609	324,523	619,638
5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305,531	236,254	572,902
6	Hand made Carpet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466,267	409,234	398,105
7	Flat/Hot Rolled Iron/Steel	280,307	520,470	353,512
8	Ethylene	41,459	75,552	319,071
9	Vehicle	5,137	67,867	308,367
10	Benzene	200,296	349,721	295,375
총 수출액		10,474,293	12,996,912	15,312,277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월21일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임.

자료: 이란 관세 통계, 각연호, 이란 관세청, 2009년 9월 현재 통계(KOTRA, 2009)

<표 13> 수입(상위 10개 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	연도		
		2005	2006	2007
1	Gasoline	3,851,498	4,335,377	3,412,139
2	Ingots of Iron and non-alloy Steel, others	800,893	1,269,787	2,381,925
3	"I" Sections of Iron/Steel, hot Rolled	95,863	220,351	753,308
4	Iron/Steel bars & rods, hot Rolled	103,689	210,721	693,073
5	Flat/Hot Rolled Iron/Steel, not in Coils	681,356	525,130	572,334
6	C.K.D. for Manufacturing motor cars of a domestic manufacturing → 65% inclusive, excluding Tires	817,692	547,574	553,121
7	Crude Soya-bean Oil	409,972	394,085	548,072
8	Other light Oils and preparations	29,844	768,438	533,944
9	Flat/Hot Rolled Iron/Steel, in Coils	259,070	236,921	519,483
10	Maize seed imported by other than Government	177,731	400,872	515,417
총 수출액		39,247,582	41,722,646	48,438,819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월21부터 익년 3월 20일까지임.

자료: 이란 관세 통계, 각연호, 이란 관세청, 2009년 9월 현재 통계(KOTRA, 2009)

□ 한국과의 교역동향⁶⁾

○ 대이란 수출입 현황

- 2008년 대이란 수출은 2007년 대비 33% 증가.
 - 2007년: 3,266백만 달러 (2006년 대비 27.6% 증가)
 - 2008년: 4,342백만 달러 (2007년 대비 33% 증가)
- 이러한 호조세는 유럽 업체들의 대이란 거래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약 8억불에 달하는 선박 인도분에 힘입은 바 크며, 또한 4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철강관 및 3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완성 승용차 수출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음.

6) KOTRA, 2009.

<표 14>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5	2006	2007	2008
수출	2,141 (0.3%)	2,559 (19.5%)	3,266 (27.6%)	4,342 (33%)
수입	3,535 (45.2%)	5,049 (42.8%)	6,482 (28.4%)	8,223 (26.9%)
무역수지	△1,394	△2,490	△3,216	△3,880
교역규모	5,676	7,608	9,748	12,565

자료: KOTIS, 2009.9(KOTRA, 2009)

<표 15> 주요 품목별 대이란 수출

(단위: US\$)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265,621,429	27.6	4,342,555,102	33
1	선박해양구조물 및부품	2,683,887	266.1	848,493,887	31,514.40
2	철강관	546,549,988	14.2	486,275,776	-11
3	자동차	364,177,889	167.7	379,269,404	4.1
4	합성수지	438,059,210	80.8	343,156,447	-21.7
5	자동차부품	290,225,728	-2.4	266,059,741	-8.3
6	냉장고	139,350,244	19.7	182,206,774	30.8
7	종이제품	152,611,815	25	177,928,620	16.6
8	철강관및철강선	93,925,595	66.7	105,552,885	12.4
9	철강재용기 및 체인	58,028,860	31.5	91,586,489	57.8
10	원동기 및 펌프	46,175,293	73.5	84,577,340	83.2
11	가정용회전 (rotaryelectric)기기	67,544,235	2.5	77,357,533	14.5
12	계측제어분석기	73,365,112	0.9	77,189,662	5.2
13	영상기기	43,748,945	-13.1	64,512,081	47.5
14	철도차량및부품	8,859,020	11,347.1 0	60,437,079	582.2
15	컴퓨터	38,684,434	10.2	55,719,725	44
16	건설광산기계	42,567,906	13	54,169,084	27.3
17	정전기기	25,868,998	72.8	48,285,340	86.7
18	플라스틱제품	47,362,365	29.3	45,433,240	-4.1
19	기타석유화학제품	72,279,328	88.2	45,063,931	-37.6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	섬유및화학기계	38,418,541	-2.3	44,945,310	17
21	인조섬유	47,193,911	33.8	43,488,649	-7.8
2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4,597,826	-75.4	40,951,762	180.5
2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686,886	103.5	37,509,683	81.3
24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97,342	-47.8	34,673,947	35,520.80
25	기계요소	40,498,377	-9.2	33,433,185	-17.4
26	동제품	34,572,676	20	31,163,399	-9.9
27	수동부품	1,378,218	39.9	29,118,929	2,012.80
28	주단조품	20,630,629	40.7	28,858,887	39.9
29	건전지 및 축전지	26,264,509	118.8	27,733,663	5.6
30	합금철선철 및 고철	387,384	-85.1	27,137,141	6,905.20
31	정밀화학원료	25,039,535	2.8	26,939,949	7.6
32	기타기계류	26,755,918	8.3	25,968,941	-2.9
33	알루미늄	33,256,029	64.7	24,401,520	-26.6
34	고무제품	16,064,229	-23.9	21,062,414	31.1
35	전자응용기기	11,687,796	91.3	18,667,601	59.7
36	편직물	8,443,060	-44.3	17,132,598	102.9
37	인조섬유장섬유사	16,660,675	18	17,041,107	2.3
38	합성고무	18,326,267	78.1	16,842,981	-8.1
39	기호식품	16,891,724	-51.8	15,566,370	-7.8
40	기구부품	11,520,866	18.8	14,917,991	29.5
41	난방및전열기기	12,121,519	-8.6	14,579,045	20.3
42	전선	14,762,721	43.1	14,223,234	-3.6
43	기타화학공업제품	10,860,484	89.9	12,851,045	18.3
44	무선통신기기	6,354,429	14.7	12,662,099	99.3
45	농약및의약품	16,691,709	10.5	12,282,162	-26.4
46	레일 및 철구조물	20,247,479	-31.4	11,127,567	-45
47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	8,561,147	219	9,686,365	13.1
48	비누치약 및 화장품	8,441,985	36.1	9,583,342	13.5
49	석유제품	13,051,456	111.4	9,097,260	-30.3
50	음향기기	11,622,782	-32.8	8,837,934	-24

자료: KOTIS, 2009.9(KOTRA, 2009)

Ⅲ. 이란의 시장 특성 및 SWOT 분석⁷⁾

1. 시장 특성

- 7천만 인구,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 반만년 역사와 전통, 높은 교육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이란은 중동 최고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라 할 수 있음.
- 이란 정부는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5.4~2010.3)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경제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음. 또한 인근 중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동의 핵심국가로 역내 산업화 달성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연간 5~6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상품이 이란을 경유하여 중아시아로 재수출되고 있음.
- 이란은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이기도 함. 2007년 대이란 수출액은 32억 6천만 달러임. 대UAE 총 수출액 37억 달러의 약 40%(15억 달러)가 이 이란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최대수출국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석유·가스전 개발 및 이와 연계한 화학플랜트 건설프로젝트가 많은 시장임. 1997년 발주한 걸프해의 South Pars 지역의 가스전 개발은 단일 프로젝트로 발주규모가 약 250억 달러에 달함. 이외 각종 화학플랜트, 댐, 담수설비 등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많고 향후 Assalluyeh 경제특구 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의 발주도 예상됨.
- 이란은 국내수요 물품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연간 240억 달러 이상의 원료 및 자본재, 완제품 수입이 불가피한 전형적인 수입 의존형 시장임. 그러나 정부는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정책으로 자국내 생산규모가 소량이라 할지라도 관련 수입품목에 대해 수시로 수입제한을 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내수시장은 저가와 고가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음. 현재 부유층은 서구 상류층과 다름없이 브랜드 제품 및 최고급품을 선호하며 일반인

7) KOTRA, "이란의 유망산업", 2008.12.

은 저렴한 가격의 중국, 대만, 터키, 이란 제품을 선호함. 생계비의 70%를 식료품 및 주거비에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외국가전제품 구입이 어렵지만 중상위계층은 외국가전제품 및 자동차 소비욕구가 강함.

- 일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임. 이는 대다수의 물품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 기인함. 현지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율이 높아 물량을 일시에 유통하기보다 시장상황을 확인하면서 물량 및 가격을 조정함.

2. 부문별 SWOT 분석

□ 정치요인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이후 최고 종교지도자가 상당 금액의 오일달러를 통제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부패는 상당부분 일소되었고 과거에 비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졌다는 평가임. - 아직도 선거부정이 있지만 국민투표의 공정성은 비교적 높음. · 현 대통령은 사회적 정의와 반부패 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권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보호는 주변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정부는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고 있음. - 주요 정책결정은 민주주의 관념이 없는 최고 종교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통령은 검소한 생활을 영유하는 청렴한 인사로 명성이 높으며, 현재도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의 시아파 정치인들에게 물적 지원을 하는 등 이라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 대외정치 상황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이란의 핵개발 시도는 국제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경제요인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2위 원유 매장국이자, 세계 2위의 가스 매장국임. - 원유와 가스 이외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생산규모도 상당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화수소류에 대한 현지수요 급증 및 석유·가스 부문의 노후화는 석유, 가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공공부채 탕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채가 재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개발된 가스전이 많아 향후 수익 증대가 기대됨.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유가 하락시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유가하락에 대비해 석유안정화기금(OSF: Oil Stabilization Fund)을 마련하였으나 동 기금이 과다 지출되고 있음. - 미-이란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미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고립을 촉구할 수 있음. · 현재까지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비즈니스 환경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를위한법’(FIPPA)은 과거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 좋은 환경 및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이란인은 전통적으로 상거래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향후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막대한 원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생산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가 더딘 상황으로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음. - 외국기업의 유전 및 가스전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함. - 바이백(Buy Back)⁸⁾ 거래 시 이익이 낮은 편이며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현재의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료시까지 Bonyard⁹⁾ 및 각종 재단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할 예정임. -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오일 스왑거래를 하고 있음. - 외국석유회사들의 주요 가스전 개발은 이란의 장기수출로 이어져 이란 정부 및 외국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임.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추가 경제제재는 석유, 가스부문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음.

8) 이란 헌법에 의해 상류부문의 민간소유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는 국영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국제석유회사들(IOCs)이 바이백(buyback)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바이백 계약에 따라 개발이 성공할 경우 프로젝트 광구를 NIOC에 인도하고 지금까지 투자액, 금리상당분, 일정한 이익상당분을 개발된 생산물로 회수할 수 있음. 이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서비스계약으로 자리매김한 계약형태임.

9) 종교 및 군소유의 영리 자선기관으로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3. 투자지로서의 장 · 단점

□ 투자지로서의 장점

①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 이란은 중동국가 중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 금속, 비금속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한반도의 8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와 함께 인구도 7,000만 명에 가까운 중동의 강국임.
 - 원유 매장량 세계 3위, 생산량 세계 4위이며, 천연가스는 매장량 세계 2위, 생산량 세계 2위임.
- 인근 중동국가 중 비교적 교육열이 높으며, 문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2005년 기준, 문맹률 15.1%

② 인근 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형학적 이점

- 이란은 남부의 해안을 이용한 물류의 출입이 용이하며 서, 북, 동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개국과 접근이 매우 용이함.
- 특히, 이라크의 최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은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 집권 후 긴밀한 정치, 경제적 교류를 나누고 있는 실정임.

□ 투자지로서의 단점

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 그러나 실제적 지원은 미비

- 이란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자본과 기술의 습득뿐 아니라 매년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의 모호성, 경직적인 노동법규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4. 투자 유치 제도

□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① 자유무역지대

○ 이란의 산업단지는 현재 6개의 자유산업지대(Free Industrial Zone)와 15 개의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구분되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4개 부처 장관 및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임원으로 구성된 자유무역 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에서 감독 및 지휘함.

- 자유무역산업지대 고등위원회(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 내에는 각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개별 조직이 있음.
- 각 조직은 독립 법인(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일반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규 및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조직의 장은 동 고등위원회 회원의 제청에 의거해 이사회 회원 중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Chairman 또는 Managing Director 라고 불림.

○ 이란의 특별 경제구역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란의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선진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한 기술 도입 및 현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 저 개발, 비도시 지역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②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 기업에 대해 15년간 내국세 면제 (현재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음)
-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FTZ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일 경우)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금 보장
-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 조세 감면 정책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현재 3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음)
- 석유화학 특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기타 이란 본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도입 예정임.

IV. 이란의 산업 개관¹⁰⁾

1. 산업구조

-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7년 산업별 GDP비중은 서비스산업 40%, 석유산업 18%, 공업(석유화학 등) 15%, 농업 13%, 제조업 10%, 건설업 4%로 나타났음.
- 이란 산업 부문의 약 70%가 정부소유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성 및 생산성 저조라는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임.
 - 이란 정부는 국영기업 부문의 민간 이양을 제4차 경제개발계획(2005.3~2010.3)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수립하고, 2006년 7월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임.
- 이란 정부는 석유의존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류, 철강, 석유화학 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이란은 자국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대부분 원유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로 조달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2004년까지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완전한 성장기조(실질 성장률: 5~7%대)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현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 집권 이후 평균 4%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광활한 영토에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는 이란은 영토의 20%가 사막인 반면, 10%는 비옥하고 강우량이 많아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전통적으로 농업이 우세하였고 현재에도 전체 노동력의 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농업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임.

10) KOTRA, 2008.12.;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최근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등하여 건설붐이 계속되고 있음. 건설산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6> 산업별 GDP 기여도

산업군	GDP(\$십억)	GDP 기여율
서비스산업	103.6	40%
석유산업	46.6	18%
공업	38.9	15%
농업	33.7	13%
제조업	25.8	10%
건설업	10.4	4%
GDP	259	100%

자료: 이란중앙은행, 2007; KOTRA, 2008.12

2. 주요 산업 현황

□ 에너지 산업¹¹⁾

-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석유 및 가스로 대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점차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가장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석유 및 가스 분야임.
- 이란은 자국 석유산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오다 89년부터 석유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수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
 - 이란의 국영석유공사(NIOC)는 10여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외국 회사들에게 바이백(Buy-Back) 형식으로 개방했으며, 1996년 호르무즈

11) 자세한 분석은 V장, VI장에서 다루었음.

해 협의 해양프로젝트(6개) 및 페르시아만 미개발 유전(3개)을 추가 개방했음. 이에 따라 96년 이후 영국 Pell Fridchmann사, 이란 IOEC 사, 프랑스 Total사 등이 바이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 석유화학 산업

- 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섬유, 페인트, 세제, 접착제, 화학비료 등 제품과 중간재를 망라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이란이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분야임.
 - 이란은 원유에 편중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석유화학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과거 5년 동안 외국자본 11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과 수출이 증가 일로에 있음.
- 현재 이란은 매년 85억 달러 수준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55억 달러 수준 가량을 수출하고 있음. 한국, 일본으로 41%가 수출되며, 그 다음으로 중동 24%, 인도 10%, 중국 9% 순임.
 - 향후 이란은 2024년까지 생산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계 시장에서 6%, 중동에서 32%를 점유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Bandar Imam 지역에 Special Petrochemical Economic Zone을 설치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차기 경제개발계획(2010~2015)기간 중 123억 달러를 투자해 27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석유화학 제품은 이미 항공기, 자동차, 주방기구 등에서 금속 소재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저렴한 전기사용료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동 분야에 170~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동 투자 금액 중 120억 달러는 정부 부문에서, 나머지는 외국 및 민간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함.
 - 동 분야의 핵심 기술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 촉진 및 라이선스 보유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 이란의 석유부 살림(Adel Nejad Salim) 차관은 2009년 4월 24일 120억 달러 규모의 10개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현 회계연도(2010년 3월 20일 종료) 이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살림 차관에 따르면 이란의 직전 회계연도 석유화학 생산량은 2,71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수치임.
 -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이 이란 총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살림 차관은 이란의 석유화학제품이 현 회계연도에 3,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남아공, 터키, 인도, 베네수엘라가 동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함.

□ 섬유 의류 산업

- 이란의 섬유 산업은 고용 인원이 1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섬유류 완제품의 경우 국제 입찰 방식에 의한 정부구매를 제외하고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 탓에 연간 수요의 30% 이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될 정도로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저조함.
- 최근 섬유류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져 편법적으로 수입되던 물량의 대다수가 공식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섬유기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편직기 중 약 50%가 노후화되어 대체수입의 불가피성과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라 기계류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어 섬유제조기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재국 생산기술이 낙후하여 생산 실적은 전무함.

- 연간 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직기류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03년 하반기부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의 니치멘사와 공동으로 섬유산업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고 있으나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임.
- 최근 들어 저가 중국 제품의 유입 확대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현저한 둔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자동차 산업

- 이란정부는 1990년 이후 탈석유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우선 성장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정,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현재 이란의 자동차회사는 22개, 관련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는 1,200여 개로 성장하여 이를 통해 29만 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냄.
- 이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술력 향상 및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국책사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1995년부터 2003년 8월 말까지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병행해 왔음. 그러나 2003년 9월 1일부로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으며, 2005년에는 수입차 부과 관세를 90%로 낮춰 매년 일본, 한국, 프랑스 등의 외국산 완성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현지에서 조립생산 되는 차종은 PEUGEOT(프랑스), PRIDE(한국), 무쏘(한국), 베르나(한국), 리오(기아), 맥시마(일본)등이 있음.
- 2002년도에 53만 대 정도가 생산되었으며 이 중 65%는 IRAN KHODRO사, 24%는 SAIPA(기아 프라이드 현지 조립생산), 13%가 합작법인 및 현지기업에 의해서 생산되었음.

- 2003년에는 약 75만 대, 2004년에는 90만 대, 2005년에는 약 100만 대가 생산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년 대비 9.61%가 증가한 110만 대가 생산되었음.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0만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3.4%(추정) 증가한 150만대가 생산되었음.
- 이란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공식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 추산 공식 자료에 의하면 약 1,00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 중 60%가 1990년 이전 모델로 노후화되어 대체 수요가 매우 큰 상태임.
- 최근 이란은 가장 오래된 모델인 Paykan을 노후 및 환경문제로 생산을 중단하였음.

V. 이란의 에너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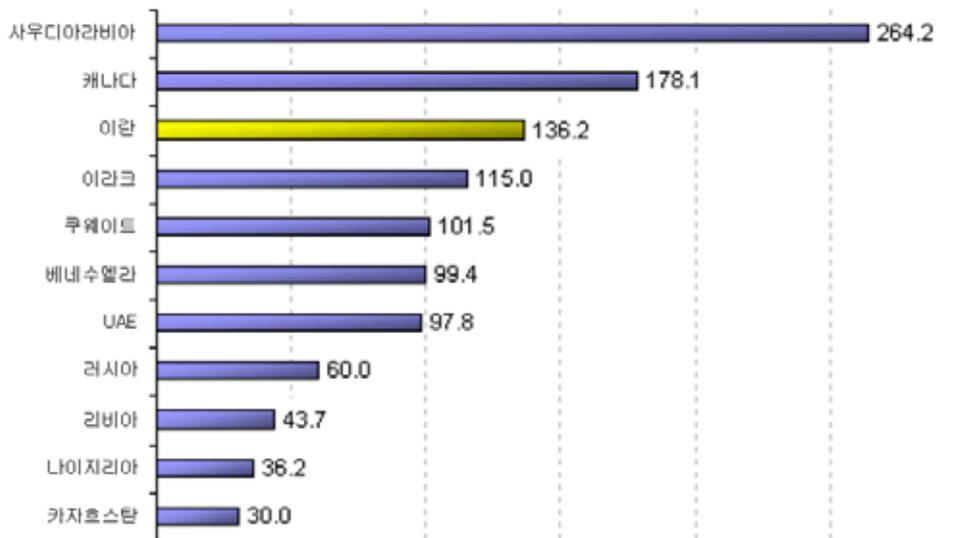
1. 이란의 석유 산업

□ 원유 매장량

- 2009년 1월 Oil & Gas Journal에 따르면, 이란의 확인매장량은 1,362억 배럴로 추산되는데, 이는 세계 총 확인 원유매장량의 약 10%에 해당함.
- 이란은 생산 중인 유전이 약 40개(육상유전 27개, 해상유전 13개) 있는데, 원유매장량의 대부분은 이라크와 접경 지역인 남서부 쿠제스탄(Khuzestan) 지역에 있음.

[그림 3] 세계 원유 확인매장량

(단위: 10억 배럴)



출처: EIA, 2009.1.1

□ 부문조직

- 이란에서는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 감독 아래 있는 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가 원유·가스의 탐사·개발을 소관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NIOC의 지역별 자회사가 실시하고 있음. NIOC의 자회사로는 NISOC, NICOC, IOOC, POGC, KOEPC가 있음.
- NISOC(National Iranian South Oil Company)는 쿠제스탄(Khuzestan), 부쉐르(Bushehr), 파스(Fars) 및 코킬루예 바 보예르 아하드(Kohkiluyeh va Boyer Ahamd) 주의 원유생산 80%(2007년 기준 약 320만b/d)을 담당하고 있음.
- NICOC(National Iranian Central Oil Company)는 NISOC가 담당하는 이란 남서부 이외의 지역 육상유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유전군은 이란 중서부의 Southern Zagros 유전군 등으로 2007년 동사 석유생산량은 약 10만b/d 수준이었음.
- IOOC(Iranian Offshore Oil Company)는 1979년 혁명 이후, 혁명전 이란 령(領) 페르시아만에서 조업하고 있던 각 석유회사(미국 자본 기업 포함)를 재편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해상유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동사의 주된 조업대상 유전은 Bahregan 유전 등의 카구섬 부근의 북부 해상유전과 Lavan섬 부근의 남부 해상유전임. 2007년 동사의 석유생산량은 약 70만b/d 수준이었음.
- POGC(Pars Oil and Gas Company)는 페르시아만 해상의 4개 가스전(South Pars 가스전: 세계 최대급 천연가스전, North Pars 가스전, Golshan 가스전, Ferdowsi 가스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음. 동사는 상기 4개의 가스전 개발에 관한 외국 석유회사를 포함한 석유회사와의 바이백(Buy Back)계약 체결 등 및 South Pars 가스전 원유층(South Pars유전)의 탐사·개발사업을 소관하고 있음.
- KOEPC(Khazar Oi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는 이란 영해에서의 카스피해의 탐사,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동사는 카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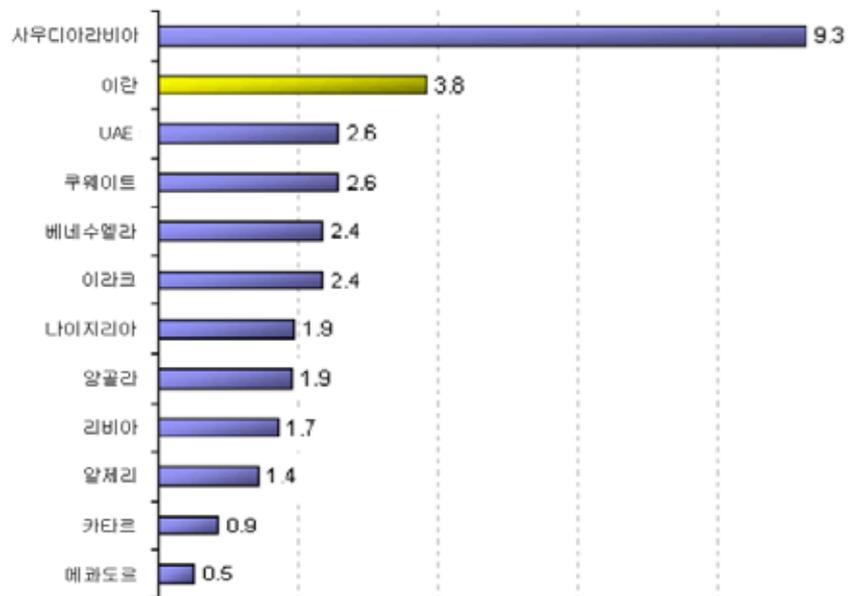
해 남부 이란 영해에서의 지질 타당성 조사 등을 소관하고 있음.
 한편, 카스피해 남부는 현재 국경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원유 생산

- 이란은 사우디에 이어 OPEC 2위의 원유생산국으로, 2007년 약 410만 b/d의 총 액체연료생산 중 380만b/d가 원유였는데, 이는 세계 생산의 4.5%에 해당됨.
- 2008년 대부분의 기간 이란의 원유 생산은 약 380만b/d인 것으로 추산됨.
- 2008년 후반 OPEC의 전체적 감축으로 이란의 생산 쿼터가 약 360만b/d로 낮아졌음. 이란의 현재 원유생산능력은 390만b/d로 추산되고 있음.

[그림 4] 2008년 OPEC 원유생산

(단위: 백만b/d)



출처: EIA, 2009.1

- 이란은 1974년에 원유를 600만b/d 생산했으나, 1979년 개혁 이후로 전쟁, 제한적인 투자, 경제제재, 숙성 유전에서 높은 자연감소율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이란 유전의 자연감소율은 육상유전에서 연 8%, 해상유전에서 연 11%이며, 현재 원유회수율은 20~25%임. 숙성 유전에서 감소율로 인해 해마다 40만~70만b/d의 원유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07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소율이 계속될 경우 2007년 평균 240만b/d였던 수출이 2015년에 제로(0)가 될 수 있다고 함. 자연감소율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란의 유전은 천연가스 주입과 같은 원유회수증진법(EOR)을 포함한 구조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표 17> 이란의 주요 4개 유전의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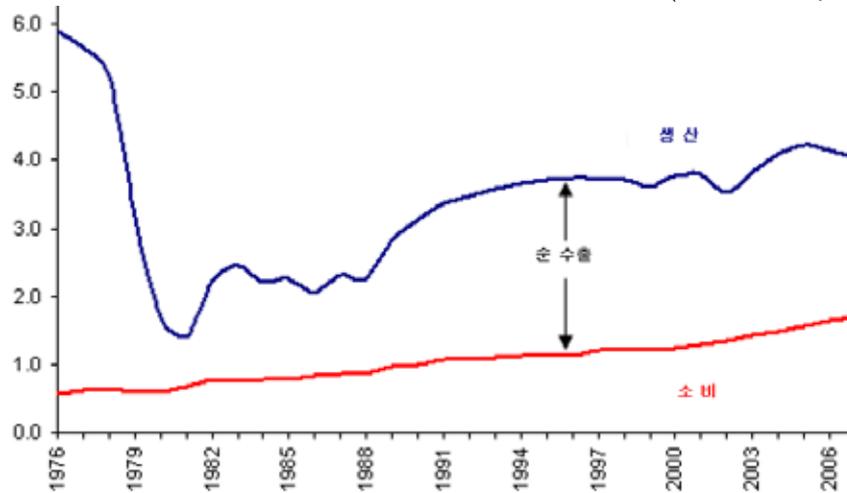
(단위: b/d)

구분	1974년	2007년
1. Marun 유전	105만4,000	약 45만
2. Agha Jari 유전	101만	약 20만
3. Ahvaz 유전	95만5,000	약 80만
4. Gachsaran 유전	91만2,000	약 48만
주요 4개 유전 합계	393만1,000(65.3%)	약 193만(47.9%)
이란의 생산량 합계	602만2,000(100%)	403만1,000(100%)

자료: 주요 4개 유전의 생산량은 2008년 1월 9일자 IranOilGas. 이란의 생산량 합계는 OPEC 통계; 석유공사, 2008.10

[그림 5] 석유생산 및 소비(1976년~2007년E)

(단위: 백만b/d)



출처: EIA, 2009.1

□ 상류 프로젝트

- 현재 페트로이란(Petroiran)의 관리를 받고 있는 아자데간(Azadegan) 유전의 확인매장량은 260억 배럴이지만, 원유 추출이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
 - 현재, 아자데간 유전은 약 2.5만b/d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란은 아자데간 I 단계의 일부로서 2009년까지 생산을 5만b/d까지 증대하기를 바라고 있음.
 - 2014~2015년까지 14만b/d(아자데간 II 단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할 국제 파트너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2007년 베네수엘라 아야쿠초(Ayacucho) 7 광구에서 300억 배럴로 추정되는 원유를 개발하기 위해 \$40억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란의 북부시추회사(Northern Drilling Company, NDC)는 또한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있어 러시아 루크오일과 협력하기로 하였음.

<표 18> 2015년까지 신규 원유 상류 프로젝트

유전	회사	천b/d	생산개시연도
아자데간 I 단계(남부)	NIOC	50	2009
다르쿠엔 II 단계	NIOC & Eni	60	2009
조페이르 I 단계	NIOC & Belarusneft	15	2010
쿠쉬크-호세이니아	NIOC	300	2010
조페이르 II 단계	NIOC & Belarusneft	25	2012
아나란 I 단계	NIOC & TBD	68	2012
야다바란 I 단계	NIOC & 중국 기업	85	2012
아자데간 II 단계(북부)	NIOC	170	2012
아나란 II 단계	NIOC & TBD	130	2015
야다바란 II 단계	NIOC & 중국 기업	185	2015
총 신규 잠재능력		1,088	

출처: OPEC, FACTS Global Energy, Middle East Economic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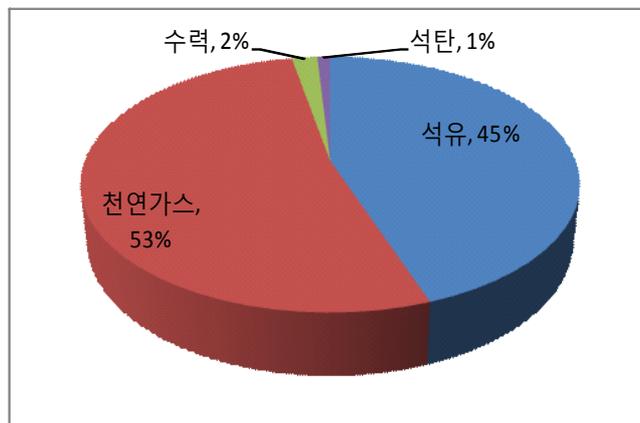
- 이란은 원유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450만b/d, 2015년 후 500만b/d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란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국제적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저지되어왔음. IEA 2008 중기 석유시장보고서(MTOMR)는 이란이 2013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확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

- 이란의 석유소비는 2007년에 약 170만b/d였음. 이란은 경질 연료생산을 위한 정제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휘발유 공급량 중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음. 그러나 이란은 대규모의 잔사연료 수출로 인해 총체적으로는 석유제품 순수출국임.
- 이란의 국내 석유수요는 주로 휘발유와 경유임. FACTS Global Energy에 따르면, 2007년 경유 소비는 약 55만b/d였는데, 이 중 거의 90%는 국내 생산품이었음.

- 이란이 2007년에 소비한 휘발유는 약 40만b/d로, 2006년 소비량과 거의 같은 수준임. 그러나 IEA에 따르면 이란의 2009년 휘발유 수요증가율이 5.3%로 전망되고 있음.
- 이란의 에너지소비 구조는 2006년 기준 천연가스가 53%, 석유가 45%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6] 이란의 에너지소비 구조(2006년)



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Annual 2006

- 이란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큰 비중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10월 20일 이란 의회는 에너지보조금폐지 법안을 가결시켰음(KOTRA, 2009.10.31).
 - 법안 내용에 따르면 쌀, 밀, 설탕, 식용유 등 식량품목에 지원하던 보조금과 석유, LPG 등 에너지보조금을 5년 안에 폐지함.
 - 그동안 보조금 지출이 과도해 재정부담이 심각했던 이유로 이란 정부는 약 20년 전부터 보조금 폐지를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내소비자의 압력과 국제적인 문제들로 이행되지 못해왔음. 이란은 인구증가와 휘발유와 식품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지급 등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IMF는 이란의 2007/2008 회계연도 동안 원유 및 그 부산물에 대한 보조금 비용이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보조금 폐지에 따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보조금 폐지에 따른 평균 물가상승률은 28.276%에 달함. 이는 23%로 예측되는 이란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수치임.
- 의회를 통과한 에너지 및 식량 보조금 폐지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정제

- 이란의 2008년 총 정제능력은 약 150만b/d로 9개 정제시설은 NIOC의 자회사인 이란국영정제분배회사(National Iranian Oil Refining and Distribution Company, NIORDC)가 운영하고 있음.
- 이란의 정제시설용량은 현재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가운데, 정제능력을 2012년까지 약 300만b/d로 확대할 계획임. 기존 정제시설의 확대와 신규 정제시설 건설로 인해 2012년에는 정제유 수입 필요성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란은 정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의 합작투자를 논의해 오고 있음.

<표 19> 이란 원유 정제능력(2008)

정제시설	천b/d
아바단(Abadan)	350
이스파한(Isfahan)	284
반다르 압바스 (Bandar Abbas)	232
테헤란(Tehran)	220
아라크(Arak)	170
타브리즈(Tabriz)	100
쉬라즈(Shiraz)	40
케르만샤 (Kermanshah)	25
라반(Lavan)섬	30
총 정제능력	1,451

자료: EIA, 2009.1

- 이란은 석유제품 수입의존도 감축 목적의 신규 정제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제시설의 민영화를 심층 논의하고 있음.
 - 이란 석유부와 민영화기구는 정제시설 지분의 민간부문 이전문제에 대해 검토 중임.
- 이란은 2008년에 7개 신규 정제시설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기존 시설의 개선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신규 정제시설 완공으로 이란의 정제능력을 기존보다 160만b/d 증대시킬 전망이다.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후제스탄(Khuzestan) 정제시설은 2011년 가동예정으로, 정제능력은 중질원유 18만b/d이며 건설비용은 \$40억으로 추산됨.
 - 페르시아만스타(Persian Gulf Star) 정제시설 역시 2011년 가동예정으로, 아살루예(Assalouyeh)에 건설 중이며, 36만b/d의 가스콘덴세이트를 정제하여 특히, 휘발유와 제트유를 생산할 예정임.
 - 아나히타(Anahita) 정제시설은 케르만샤(Kermanshah)주에 건설 중인데, 2012년 가동예정으로 15만b/d 생산목표임.
 - 파스(Pars) 정제시설도 2012년 가동예정으로, 정제능력은 12만b/d임.
 - 호르모즈(Hormoz) 정제시설의 건설비용은 \$40억이고 중질원유 및 초중질원유에서 30만b/d 생산목표로 반다르 압바스(Bandar Abbas)에 건설 중임.

□ 휘발유 수입

- 이란의 2007년 휘발유 수입액은 약 \$60억에 달함.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배급제도 이후 휘발유 수입은 2007년 5월 20.4만b/d에서 6월 이후 9.4만b/d로 감소했음. BP, Reliance, Total, Trafigura, Vitol 등과 같은 다국적 대형도매회사가 이란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음.
 - 이란은 현재 국내 휘발유 및 경질 연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FACTS Global Energy

에 따르면, 2011년까지 휘발유 보조금제도 폐지 계획과 함께 국내 휘발유 정제시설 프로젝트 목표를 통해 이란은 2012년까지 휘발유 수출국을 지향하고 있음.

□ 원유 수출

- 이란의 원유는 일반적으로 유헥함유가 중간 정도인 API 28°-35°임. 이란은 2007년에 주로 아시아와 유럽 OECD 국가에 약 240만b/d의 원유를 수출하여 세계 4위의 원유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함.
- 이란 중질 원유가 최대 수출품으로 99만b/d 수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이란 경질 원유를 74.6만b/d 수출했음.
- 2007년 이란의 원유수출 수입(收入)은 약 \$570억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재정수입의 1/3에 해당되며, 총 수출수입의 85%를 차지함.

<표 20>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국(2007)

국 가	천b/d
일 본	523
중 국	411
인 도	374
한 국	258
이탈리아	197
프랑스	131
남아프리카공화국	128
그리스	113
네덜란드	93
스페인	79
기 타	151
총 정제능력	2,458

자료: EIA, 2009.1

- 이란은 중동 최대의 원유수송선단을 보유하고 있음. 이란유조선공사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NITC)는 초대형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 VLCC)을 포함한 29척의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음.
 - 이란은 수출터미널의 저장시설이 가득 찼을 경우 유조선을 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보도된 바 있음.
- 이란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Kharg Island의 원유저장용량은 2.02억 배럴, 선적능력은 500만b/d임. 그 뒤를 이어 Lavan Island의 저장용량은 500만 배럴, 선적능력은 20만b/d임.
 - 기타 주요 터미널은 Kish Island, 아바단(Abadan), 반다르 마흐샤르 (Bandar Mahshar), 카스피지역에서의 수입품을 수용하는 네카 (Neka) 등이 있음.
- 이란 남동부 해안의 호르무즈(Hormuz) 해협은 이란과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의 원유수출을 위한 주요 경로임.
 - 동 해협의 가장 협소한 지점의 폭은 21마일이지만 2008년 상반기에 동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은 1,700만b/d에 달함. 이는 동 기간 총 해상무역 원유량의 약 2/5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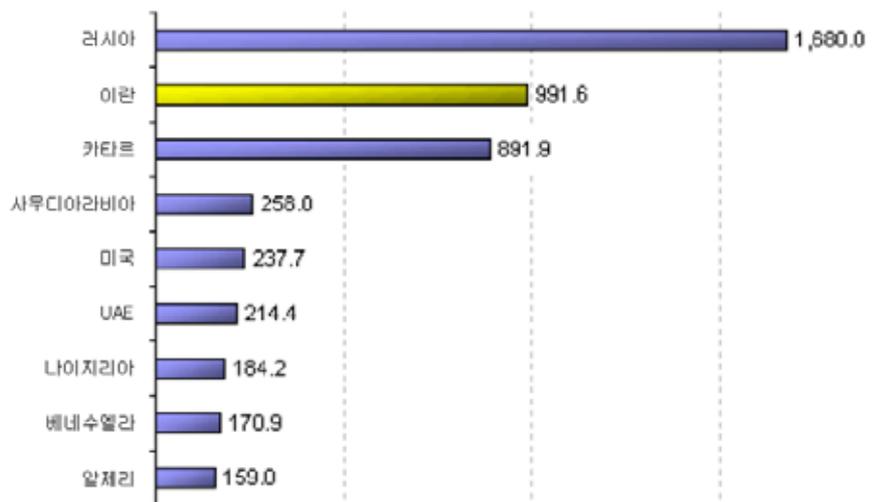
2. 이란의 천연가스 산업

□ 천연가스 매장량

- Oil & Gas Journal에 따르면, 이란의 2008년 확인 천연가스 매장량은 948조ft³로 추정되는데, 이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2/3는 비수반 가스전에 부존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주요 천연가스전은 사우스파스, 노스 파스, 타브낙(Tabnak) 칸간-나르(Kangan-Nar) 등이 있음.

[그림 7] 국가별 천연가스 매장량(2009.1.1)

(단위: 조ft³)



자료: EIA, 2009.1

□ 부문 조직

- 이란가스공사(National Iranian Gas Company, NIGC)가 천연가스 인프라, 수송 및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 NIOC의 자회사인 이란남부석유공사(National Iranian South Oil Company, NISOC)는 사명(社名)이 의미하는 대로 남부지역의 대부분의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 NISOC는 이란의 2007년 총 천연가스 생산의 약 65%를 담당했음.
- 이란은 계속해서 가스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음. 이는 이란 내 가스자원 개발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란국영석유회사 NIOC는 모든 탄화수소 문제를 자회사인 NIGC(가스), NIORPDC(정유) 및 NPC(석유화학)와 조정함. NIOC는 가스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고, NIGC는 가스 유통과 마케팅을 책임지만 공급을 할 수는 없음. 대신 NIGEC (National Iranian Gas Exporting Company)가 가스 수출을 담당하고 있음.
 - 이란 가스부문에 투자를 원하는 국제 회사들은 종종 이란 내에서 가스 개발 및 상용화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3개의 국영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이란이 세계 가스산업에서 지위를 찾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스 관련 국영 기업들의 구조를 개혁하여 모든 가스 문제를 책임지는 단일 국영가스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란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나 알제리의 소나트라크와 같이 이란 내외에서 가스 생산,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단일 국영가스회사가 필요함. 이 회사는 이란을 위해 가스 관련 모든 일(가스 생산, 국내 유통, 주요 가스기반 산업에 대한 가스 공급 및 가스 수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야만 함.
 - NIOC는 원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자본 도입, 그리고 국내 석유제품 수요 충족, 원유 수출 등 석유 문제에만 집중해야 함.

- 또 다른 대안으로서 석유, 가스 및 기타 에너지 문제를 위한 구분된 부서를 가진 에너지부를 제안할 수도 있음.
-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현재 렉솔, 쉘, 토탈 등 일부 국제석유회사들(IOCs)이 이란의 천연가스부문에서 철수했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천연가스 상류 개발에 있어 국영 인도석유회사(Indian Oil Corp.), 중국 석유화학회사(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러시아 가스프롬과 같은 동방 기업들에게 역할을 크게 해 주는 방안을 탐색해 왔음.¹²⁾

□ 소비(국내의 가스이용 촉진)

- 이란이 2007년에 소비한 천연가스량은 3.9조ft³로 추산됨. 향후 10년간 천연가스 소비는 연간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년 간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모두 급증하였으며, 이란에서는 천연가스를 숙성 유전에 재주입하는 데에도 자주 사용함.
- FACTS Global Energy에 따르면, 이란의 천연가스 수출은 향후 거대 사우스가스 프로젝트 확대 및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임.
 - 2007년 천연가스 생산 중 약 70%는 상품화되었고, 약 30%는 원유 회수증진법의 일환으로 가스 재주입에 사용되었으며, 2.85억ft³는 연소배출(flaring)로 소실되었음.
- 2004년 기준으로 이란 발전소의 75% 이상이 가스를 연료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 수요는 매년 약 1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실시되고 있어 발전용의 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2) 이란의 바이백(buy-back) 방식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가스전 운영을 NIOC에 넘겨주고 개발 후에 그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천연가스 생산에서 보수를 받음.

- 한편, 이란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휘발유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음. 이란은 약 420만b/d의 원유를 생산하는 대산유국이지만 국내 석유정제설비의 부족으로 국내소비용 휘발유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란 정부는 2007년 6월 27일부터 한 달에 휘발유 구입량을 제한하는 휘발유할당제를 도입하여 휘발유의 소비억제를 꾀하고 있음.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휘발유 대체로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 연료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가스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향후 CN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CNG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임.
- 현재, 천연가스는 자국 내 에너지 공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 정부는 국내의 가스이용 촉진정책에 따라 향후 이 비중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
 - 석유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천연가스 가격에 정부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용과 공업용 등의 가스에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세계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2007년 6월 25일자 테헤란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이란 인구의 약 76%에 상당하는 약 5,300만 명이 국내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이용하고 있음. 향후 파이프라인 부설 등(국내 가스공급)에 연간 60억~7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임. 이란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1.7%로 정부가 기대하는 증가율인 0.8%에 대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남. 따라서 에너지소비를 통제하고 삭감할 수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개발

- 이란의 천연가스전 탐사는 바라비(Varavi), 샤놀(Shanol), 호마(Homa) 가스전을 포함한 파스주와 페르시아灣 살만(Salman) 가스전에서 진행 중임.

- NIGC는 2008년 11월 인도 석유천연가스회사와 합작으로 파시(Farsi) 광구에서 추정 가채매장량 약 12.8조ft³를 생산하기로 했음을 발표한 바 있음.
- NIOC는 2008년 4월 이란 남서부 쿠제스탄(Khuzestan)주에서 추정 가채매장량 약 7,400억ft³의 고유황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NIOC는 2007년 말에 파스주에서 11.4조ft³의 신규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는데, 이 중 가채매장량은 최소 8.5조ft³일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4월, 오만과 이란은 이란의 해상 키쉬(Kish)가스전 개발계약을 체결했음. 매장량은 50조ft³로, 오만은 30억ft³/d의 천연가스 생산 계획으로 키쉬(Kish)가스전 개발에 \$70억을 투자할 예정임. 첫 생산물 인도를 2013년으로 잠정 계획 중인 동 프로젝트의 1단계에서는 약 20억ft³/d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 중 65%는 이란에 귀속되고, 35%가 오만으로 보내짐. 동 프로젝트의 2단계에서는 10억ft³/d를 생산하여 이란에 귀속됨.
- 이란은 2009년 7월 2015년까지 사우스파스(South Pars) 가스전과 노스파스(North Pars) 가스전 개발에 \$750억 투자 계획을 밝힘.
 - NIOC에 따르면, 사우스파스 가스전에서 연간 약 280억m³를 생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에 \$400억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으로 이란은 24개 단계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NIOC는 노스파스 가스전 개발에 \$250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노스파스전은 개발하기 어려운 천연가스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NIOC는 상세한 투자유치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자금조성을 위해 3년간 \$123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림 8] 이란의 사우스파스와 노스파스 가스전



자료: Wikipedia, 2009.7

□ 사우스파스(South Pars) 가스전

- 이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는 해상 사우스파스(카타르에서는 North Field)가스전 개발임. 사우스파스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50조ft³로 추산되는데, 이란의 총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47%를 점유하고 있음.
- 동 가스전은 1990년에 발견되었으며, 페르시아만 해상 62마일에 위치해 있고, 20년 동안 28단계(phase)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 24단계까지 입찰되고 있음.
- 전체 프로젝트는 NIOC 자회사인 파스석유가스공사(Pars Oil & Gas Company)가 관리하고 있음.

- 각 단계는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 및/혹은 액성천연가스(NGL)와 콘덴세이트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생산을 함.
 - 1~5 단계는 생산 중에 있으며, 6~10 단계는 2009년 중반까지 생산 개시 일정으로 서로 다른 개발 완료단계에 있음.
 - 사우스파스에서 개발된 천연가스 대부분은 내수 소비와 가스 재주입에 배정될 예정임. 나머지는 남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수출되거나 LNG 생산 및/혹은 GTL(gas to liquids)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임.
- LNG는 파스석유가스회사(Pars Oil and Gas Company, PAGC)가 상류 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하류 개발은 이란가스수출공사(National Iranian Gas Export Company, NIGEC)를 포함한 여러 회사가 나누어 하고 있음.
 - 이란의 LNG 생산은 이란 LNG, 파스 LNG, 페르시아 LNG 이상 3개의 프로젝트에서 맡고 있음.
 - 사우스파스 11~14 단계 개발은 이란의 총체적 LNG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현재 사우스파스 12단계는 이란 LNG 프로젝트의 원료 공급원이 될 예정으로 2012년 생산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란은 이란의 LNG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적인 합작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미국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석유회사들(IOC) 및/혹은 국내 석유회사들과 합작투자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FACTS Global Energy에 따르면, 이란은 수명 상한으로서 최대 LNG 수출이 약 1.46조ft³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이란의 LNG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에 뒤처지고 있음.

<표 21>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단계명	개발기업	
1 단계 (1997년 9월 계약)	Petropars(이란)*	천연가스 및 컨덴세이트 생산 2004년 4월 생산개시 2, 3단계 이어 두 번째 생산 개시
2, 3 단계 (1997년 9월 계약)	TotalFinaElf(프랑스)*, Petronas(말레이시아), Gazprom(러시아)	천연가스 및 컨덴세이트 생산 2003년 2월 생산개시
4, 5 단계 (2000년 7월 계약)	PetroPars(이란), Eni(이탈리아), NICO(이란)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LPG 등 생산 2005년 4월 생산개시
6, 7, 8 단계 (2002년 10월 계약)	PetroPars, StatoilHydro(노르웨이)*	이란 남서부 Agha-Jari 유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노후화된 유전의 재주입용으로 공급 2009년 생산개시
9, 10 단계 (2002년 6월 계약)	GS(한국), IOEC(이란), OIEC(이란)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LPG 등 생산 2009년 생산개시
11단계 (Pars LNG 프로젝트) (2009년 6월 가계약)	CNPC(중국), Total, Petronas	LNG 2014년 생산개시 예정
12단계 (Iran LNG 프로젝트) (2009년 11월 계약)	Daelim(한국), Tecnimont (이탈리아), Nargan(이란), Dorriz(이란), Gamma(이란)	LNG 2012년 생산개시 예정
13, 14단계 (Persian LNG 프로젝트)	Royal Dutch Shell, Repsol YPF	LNG 2014년 생산개시 예정
15, 16 단계 (2006년 6월경 계약)	Khatam ol-Anbiya 건설본부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석유화학 용 원료 생산
17, 18 단계 (2006년 6월경 계약)	IDRO(이란), OIEC, IOEC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석유화학 용 원료 생산 2007년 7월 개발 개시
19, 20, 21, 22 단계	미정: 2006년 2월말에 입찰 공고를 신문 등에 게재. Shell, Total, Eni, StatoilHydro, Sinopec, Likoil, BHP, Petrobras사 가 자격심사 통과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석유화학 용 에탄올, LPG, 수출용 컨덴세이 트, 유황 등 생산
23, 24 단계	미정: 2006년 7월에 입찰공 고를 신문 등에 게재	천연가스, 석유화학용 에탄올, LPG, 수출용 컨덴세이트, 유황 등 생산

주: *는 운영권자

자료: JOGME, 2008.10(한국석유공사, 2008.12); ViewsWire, 2009.10.11; Wikipedia, 2009.11.4;
Tehrantimes, 2009.11.4

[그림 9] 사우스파스 가스전을 비롯한 주요 유·가스전 지도



자료: JOGME, 2008.10(한국석유공사, 2008.12)

□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

① 대 터키 수출

- 2002년 1월 말 이란과 터키는 경제, 정치, 기술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양국 간의 가스파이프라인 연결을 공식 발표하였음. 1996년 이란과 터키는 이란이 1999년부터 22년간 연간 99억m³ 이상의 천연가스를 터키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7년의 수출량은 연간 60억2,000만^m로 당초 예상보다 2년 지연되어 2002년 12월에 천연가스 수출이 개시되었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간혹 수출이 중단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이란의 동절기 국내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공급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수출중단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음.

② 수출계약 체결

[아르메니아]

- 최근 이란이 대 아르메니아 가스 수출을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149km의 가스파이프라인 공사에 착수했음. 이란과 아르메니아는 1992년에 이란 석유부 장관의 아르메니아 방문 시 2007년부터 2027년간 총 360억^m의 이란의 천연가스를 아르메니아로 수출하는 계약에 서명한 바 있음.
- 이란은 대아르메니아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향후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로 가스 수출을 도모할 예정임.
- 동 계획에 따르면, 이란 북부의 타브리즈(Tabriz)에서 국경까지 약 100km, 아르메니아 영내 약 4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가스가격 및 파이프라인 노선에 관한 교섭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한 결과, 가스공급 및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2004년 5월이었음. 그 후 2007년 3월 이란으로부터 대 아르메니아 가스 수출이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황에 있어서는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없음.
- 이란은 대아르메니아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유럽 가스수출을 추진할 계획임. 대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그루지아의 Supsa항에서 크림리아의 Feodosiya항까지 550km에 달하는 해저 가스파이프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소요비용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아르메니아를 경유한 대유럽 가스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 이란은

연간 600억m³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중 100억m³는 대 우크라이나 수출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스위스]

- 2008년 3월 17일 이란 국영가스수출공사(NIGEC)와 스위스 민간 에너지 기업인 EGL는 연간 55억m³의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액은 25년간 약 180억~270억 유로가 될 전망이다.
- 스위스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은 2006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작년 10월에는 스위스에 대한 원유 및 가스 보장을 위한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스위스가 이란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음.

[UAE]

- NIOC는 UAE의 Crescent Petroleum과 이란의 Salman 유·가스전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초 수출개시 예정일은 2005년 12월이었으나 공사지연 및 이란 측에서의 가스가격 재검토 요청 등으로 수출은 아직 개시되고 있지 않고 있음.

③ 수출 계획(가능)

[파키스탄]

- 사우스파스 가스전에서 파키스탄으로 총 길이 2,100km를 연결할 계획임. 당초 동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이란-파키스탄-인도(IPI) 간 진행되었으나 현재 인도는 동 프로젝트에서 빠진 상황임.
- 파키스탄 의회는 석유수입을 줄이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4월 8일 IPI 프로젝트 하에 75만~100만ft³/d의 이란산 가스 수입을 승인했음.

[그림 10] 이란-파키스탄-인도 (IPI) 가스파이프라인



- 러시아는 최근 이란-파키스탄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유럽시장에서 이란 가스가 자국가스와 경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Platts, 2009.5.27).
- 러시아는 이란산 가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EU 주축의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에 대항하여 유럽행 사우스스트림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추진 중임.
- 가스프롬이 이란-파키스탄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파이프라인 운영 및 건설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

[유럽]

- 나부코(Nabucco) 가스파이프라인 계획
- 79억 유로 규모의 나부코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아제르바이잔 및 중앙아시아 가스를 EU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는 이란·그루지야,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에 이릅니다.
- 3,300km 길이의 동 파이프라인 건설은 2011년 개시, 첫 수송은 2014년으로 예상되며, 최대 수송능력은 연간 310억^{m³}임.

-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7월 13일 가스파이프라인 경유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 및 터키가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가운데, 동 가스파이프라인에 공급할 가스 확보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 나부코 프로젝트는 연간 310억m³의 카스피 및 중동 가스를 터키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그 큰 규모의 가스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Nabucco Gas Pipeline International)' 컨소시엄은 이란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음 (Iran Daily, 2009.4.14).
 - 컨소시엄은 이라크와 이집트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란은 핵 문제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부코 사업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그림 11]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자료: Wikipedia, 2009.11.

○ 페르시아(Persian) 가스파이프라인 계획

- 2009년 4월 이란 노자리(Nozari) 석유부 장관은 이란-유럽 간 가스 파이프라인인 페르시아 파이프라인(Persian Pipeline)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7개월 전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힘.
 - 페르시아 파이프라인(Persian Pipeline)은 이라크, 시리아, 지중해를 거쳐 이란과 이탈리아, 그리스를 연결하는 것임.
 - 동 계획의 건설비는 약 40억 달러, 가스수송능력은 연간 370억 달러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건설개시와 조업개시의 시기는 불분명하고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함.

[오만]

- 2007년 6월 이란과 오만 양국 간 10억^{m³}의 이란산 가스를 오만에 수출하는 초기 합의서가 체결되었음. 그 후 2008년 9월, 이란과 오만 양국은 키슈 가스전의 공동개발과 가스 공급문제에 관해 협의하였음.
 - 이란은 향후 오만에 있는 LNG 플랜트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쿠웨이트]

- 2005년 3월 이란과 쿠웨이트 양국은 2007년부터 25년간 이란산 가스의 쿠웨이트 수출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이 가스는 전력생산 및 해수담수화에 사용될 예정임.

[바레인]

- 바레인은 2008년 10월 15일 이란 석유부 Nozari 장관의 바레인 방문기간에 이란으로부터 일일 2,800만^{m³}의 가스수입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는 2007년 11월 17일 바레인 방문기간에 체결된 가스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임. 한편, 바레인은 향후 수요증가에 부응할 충분한 가스공급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도 확보할 계획임.

[그리스]

- 이란과 그리스 양국은 2002년 3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란-터키-그리스 북부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로써 이란산 가스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거쳐 유럽으로 수송되거나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최근 가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태리로 공급될 수 있음.
-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 육상 경로를 통한 가능성이 큼.

3. 석유·가스부문 투자에 관한 이란의 사법 구조

□ 대이란 투자 촉진을 위한 사법체계 필요

- 이란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적 입법과 법에 의한 보증과 보호임.
- 이란은 주요 원유·가스 보유국 중 하나임. 이란은 세계 총 원유매장량의 약 10%, 세계 총 가스매장량의 약 16%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2위의 원유·가스 보유국임. 이란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때,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 이란 법률과 규제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임.

□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 및 시행령

- FIPPA(2002년 개정)¹³⁾ 3조에 따르면, 이란 내 외국인 투자의 주요 수단인 민간부문 활동이 허가된 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제반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 5월 기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호법(FIPPA, 1955.11 제정)을 47년 만에 개정해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지분 한도를 확대하였음.

- FIPPA의 승인 및 성과는 이란 경제에 있어 전환점으로 인식될 수 있음.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위해 이란회사를 등록할 경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함.¹⁴⁾
- 자본 도입 이후 대우와 일반 대우 기준에 있어서 FIPPA 8조 및 그 시행령은 국가적 대우 행위를 제공함.
 - FIPPA 8조는 “동 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에 제공 되는 모든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편의를 비차별적으로 향유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 FIPPA에 따르면,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들은 동법이나, 기타 이란 법률 및 규제법이나, 이란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 투자 협정에 따라 달리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와 시설을 동등하게 향유하게 됨.
- 획득한 이윤 및 투자 원금을 이란에서 외부로 송금하는 것에 관해서 FIPPA 13조 및 14조는 외국인 투자 원금 및 획득된 이윤을 동 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함.
 - 그런데 FIPPA 16조에 따르면, 자본 및 그것으로부터 획득된 이윤의 회수는 투자된 프로젝트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함.
- 징수와 관련하여 FIPPA 9조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는 법적 정당성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공의 목적이 아니거나, 징수 직전 투자의 실제 가치에 근거한 적절한 보상 없이는 징수나 국유화에 종속되지 않음.
-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도 한 장이 할애되어 있는데, 본 법에 의거한 투자 관련 상호의무에 있어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협상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의 양자 투자 협정을 위한 법에 의거하여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 국내 법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음.

14) 그러나 FIPPA에서는 소유권에 대해 제약을 허용하고 있음.

-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헌법 제 139조에서 공공 및 국가 재산과 관련한 소송의 해결 혹은 그 소송 중재를 의뢰하는 것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의거해야 하며, 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통지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분쟁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정수의 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헌법 제 139조에 따르면, 의회는 정부가 보상 문제까지도 국제 중재에 의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음.
 - 헌법 제 139조는 “공공 및 국가 재산과 관련한 소송의 해결 혹은 그 소송을 중재 의뢰하는 것은 모든 사건마다 각료회의의 승인에 의거해야 하며, 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통지받아야 한다. 순전히 국내적 중요 사건들뿐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사건의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은 반드시 득해야 한다. 여기서 의도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법에서 특정할 것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
- FIPPA 8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부여되는 재정적 편익에 대해서 국가적 대우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본 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권리, 보호 및 편익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적 대우에 있어서 의회에서 1988년에 채택한 직접세법에 따라야 함.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수 국가에서의 세율은 거의 3%인데, 현 이란 직접세법에 따른 세율은 25%임. 이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 이란법의 약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이란 투자법에 따르면 이란은 비록 다음과 같은 일부 제약과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도입 및 설립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임.
 -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a)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투자 허가를 받을 것, b) 이란 내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 금지, c) 외국 정부에 의한 투자 불가능

□ 바이백(Buy-Back) 계약

- 국제석유회사들 간의 잠재력이 있는 국가에 투자하기 위한 경쟁과 해당 국가가 국제석유회사의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약에 나타나기 마련임. 계약자들은 계약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상업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해당국가 정부는 법적인 문제와 계약자의 운영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그러므로 석유·가스 산업의 사법구조를 검토하고자 하면 주요 석유·가스 계약을 주목해야 함.
- 이란 헌법은 외국 회사가 이란의 탄화수소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란 정부는 1990년에 “바이백” 계약¹⁵⁾을 창안했는데, 이 계약에 따라 외국 회사는 석유·가스 분야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감수했던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한 비율의 회수금을 받을 수 있음.
- 이란은 개혁 이전 시대에 석유·가스부문에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나 1979년 이슬람 개혁 이후에는 1987년 석유법 2조에 근거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은 당연하며, 헌법 제 44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FIPPA에 따르면 헌법 제 44조를 고려할 때, 모든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오직 “시민 공유(civil sharing)”, “바이백” 및 “시공-운영-이전(Build-Operate-Transfer, BOT)”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정됨. 그러나 1987년 석유법 6조에 근거하여 석유·가스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허락되지 않음. 이에 석유·가스부문에서의 유일한 조정은 바이백 계약임.
- 바이백 계약에 의해 이란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는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자(비록 이란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기는 하지만)가 NIOC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됨.

15) 이란 헌법에 의해 상류부문의 민간소유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는 국영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국제석유회사들(IOCs)이 바이백(buyback)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바이백 계약에 따라 개발이 성공할 경우 프로젝트 광구를 NIOC에 인도하고 지금까지 투자액, 금리상당분, 일정의 이익상당분을 개발된 생산물로 회수할 수 있음. 이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서비스계약으로 자리매김한 계약형태임.

- 동 계약자는 유·가스전을 개발하고 NIOC는 자본지출(CAPEX), 운영지출(OPEX) 및 발생한 은행수수료로 구성된 비용을 되갚음.
 - 추가로 동 계약자는 협상된 보수를 받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현금을 통해 운영자가 생산된 탄화수소의 한 몫을 살 수 있게 해 줌.
 - 바이백 조건은 1998년에 처음 적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원유 가격에 따라 다른 보수를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투자 효과와 결과는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법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외국기업으로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의 묘미가 없고, 개발의 결과에 따라 리스크가 많이 존재함.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의 법적 모호성

- 기존의 분명하고 절대적인 법제도와 투자자 자본 보호 및 손해에 합당한 보상은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임.
- 국제 통상을 관장하는 규정 및 규제의 모호성과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다른 해석이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애물임. 여기에서는 이란 헌법, 석유법, 이란 예산 및 기획 법령 등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시하고자 함.

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

- 이란 내의 외국인 투자의 제한된 범위를 논하는 관련 헌법 조항은 제 44조, 45조, 81조 및 139조 등임.
- 제 44조는 배타성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고, 제 81조는 회사 및 사업의 진입 및 설립을 제한하고 있음. 상기 조항들이 외국인에게 개발 허가지 부여 금지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가능성 역시 금지하고 있음. 한편, 제 139조는 공공 및 국가 재산과 관련한 소송을 중재에 의뢰하는 것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음.

○ 민간부문의 활동

- 제 44조에 근거하여 이란의 경제는 3개 부문(국가, 협력, 민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부문은 모든 대규모, 모(母)산업 등을 아우르며, 국가에 의해 관리됨. 그러므로 대규모, 모(母)산업으로 여겨지는 석유·가스 부문과 주요 광물자원은 국유이며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민간부문은 이 부분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음. FIPPA 제 3조 (a)항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민간부문의 활동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허가됨.
 - 한편, 제 44조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산업이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활성화되고 개발된다면 그 산업이 대규모 산업으로 전환되며 국유화 대상으로 인식되고, 결국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의 이란 내 회사설립에 대한 법적 제약

- 외국인들에게 두 가지 심각한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분야(헌법 제 44조에 준하여)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배제하는 법적 조치이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국의 국민이 투자에 참여(헌법 제 81조에 준하여)하는 것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구조임.¹⁶⁾
- 상기 장애물 외에도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음.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었음. 일부에서는 헌법 제 81조를 이란 내의 경제활동에서 어떠한 외국인 투자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함.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외국인과 이란인 사이의 49%와 51% 비율로 전통적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임.
- 헌법 제 81조에는, “외국인에게 개발허가를 부여하거나 혹은 통상, 산업, 농업, 서비스나 광물채취에 종사하는 회사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나와 있음.

16) 한 가지 가능한 전략은 외국 회사가 이란 국영 혹은 민영 파트너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이 조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헌법수호위원회의 해석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¹⁷⁾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했음.

② 이란의 석유법

- 1957년, 1974년 및 1987년에 승인된 석유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다름. 생산물분배계약이 1957년 석유법에서 허락된 반면, 1974년 석유법에서는 금지되었고 대신 서비스계약이 허용되었음.
 - 1957년 석유법에 따르면, 석유자원에 대한 주권이나 소유권을 주게 되는 어떤 종류의 외국인 참여도 금지되었음. 외국회사들과 이란석유회사는 합작회사를 특정 지역에서 설립하여 탐사, 개발, 생산 및 운영할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그러한 계약은 소위 25-75 계약이라 하는데, 외국인 파트너에 돌아가는 최종 수익은 25%이기 때문임.
 -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석유법은 한 번 더 변경되었는데, 1987년 10월 1일에 승인된 석유법에 따라 석유 산업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는 취소되었음.
- 상기 석유법의 주요 개념은 헌법에서 규정된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제약임. 1987년 석유법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국가의 석유자원은 공유재산(자산) 및 국부의 일부로서 헌법 제 45조에 따라 정부의 처분과 통제를 받으며, 석유부와 그 산하 기업들에 의해 국내 및 해외에 기투자된 혹은 미래에 투자될 모든 시설, 설비, 자산, 재산 및 자본투자는 이란국민에 귀속되고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의 처분과 통제 하에 남게 된다.”

17)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 주재 외국 투자 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투자 분야에 대해 외국의 100% 지분 취득을 인정하였음.

“석유자원과 설비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 행사를 위한 권위는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에게 부여되되, 본 석유법에 제시된 규제, 권리, 권력에 근거하여 일반 원칙과 정책은 석유부에 의해 행사된다.”

- 제 6조는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6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모든 자본투자는 운영분과의 예산에 근거하여 석유부에 의해 제안되고 국회의 승인에 따라 일반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에 있어 외국인 투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무엇이 되었든 허락되지 않는다.”

- 그리하여 외국인에게 개발허가권을 부여하거나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가져올 그 어떠한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생산물분배계약, 합작투자계약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따라서 석유자원,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어떤 종류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허용되지 않으며,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계약임.

③ 이란의 기획 및 예산 법령

- 바이백계약을 위한 예산 균형 및 할당은 국가의 연간 예산 책정 시 국회에서 결정되고 승인됨.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된 법에 따라 그러한 계약을 조정할 의무가 있음.
- 이란 예산 법령 1386조 2(c)항과 제 4차 이란 5개년 경제, 사회 & 문화 개발계획(1384~1388)¹⁸⁾ 제 13~14조는 주로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몇몇 제약내용을 담고 있음.

18) Adopted in 11/06/1383 Iranian Calendar.

④ 노동법

- 이란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몇몇 법적 제한이 있음. 그들은 법적 노동 허가권을 획득했을 경우에만 이란 내에서 근로하도록 고용될 수 있으나, 국내 노동력에 대한 이란 법률 및 규제의 보호적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노동 허가권을 발급받는 것이 어려움.

⑤ 직접세법

- 국내적 대우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997년에 국회에 의해 채택된 이란 직접세법에 따라야 함. 여러 나라에서 세율을 약 3%로 정하고 있는 반면, 현 이란 세법에 따른 세율은 25%로, 기타 수수료와 관련하여 외국자본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음.

4. 기타 광물자원

□ 광물자원 매장 현황

- 한반도의 8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사우디 1위, 캐나다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러시아 1위)의 자원 부국으로, 그 외 비석유 광물자원 역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요 부존광물로는 철광석·납·구리·아연·알루미늄·금 등이 있음.
- 이란 광공업성 산하 IMIDRO(Iranian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이 지난 2004년 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란에는 약 62가지의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이 있으며, 전체 광물의 총 확인 매장량은 27억 톤이라고 발표했다.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007년까지의 IMIDRO의 탐사 결과, 광물자원 매장량은 약 54억 톤에 이른다고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구두 발표함. 하지만 구체적인 광물 종류와 매장량은 밝히지 않음.

- 현재 약 3,800개의 광산에서 매년 약 1억5,000만 톤 가량의 광물이 채취되고 있음.

<표 22>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광물	매장량(톤)	연간 생산량(톤)	생산량 순위(세계)
금	300	195(Kg)	55위
철광석	21억5000만	1800만	16위
구리	1400만	15만2000	16위
납	1억600만	6만8000	16위
아연	1000만	10만9000	23위
알루미늄	-	21만2000	25위

자료 : Mines & Mining In Iran, IMIDRO(2004년 기준)

□ 이란정부의 광물자원 개발계획

- 이란정부는 하타미 대통령 집권기에 추진된 제3차 경제개발계획(2000~2004년) 기간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Vision 20year의 일환으로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GSI(Geological Survey of Iran) 프로그램을 수행, 20개의 주요 광물생산지역을 선정·중점개발하기로 하였음.
 - 동 자원 개발 계획으로 이란정부는 20년 이내 연간 각 100만 톤의 구리 및 아연, 5,000만 톤의 철광석, 25톤의 금광석 생산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경제개발 기간에는 연간 700만 톤의 철광석 및 5톤의 금광석 생산력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더 다양한 자원개발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보유량 측정 연구를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2006년 7월 최고지도자령으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광산업 관련기관의 민간 매각을 통한 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적배양을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조달 및 선진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대내외적인 환경악화 및 적극적인 개발의지 부족

- 최근의 미국 및 UN의 대이란 경제제재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달러화 거래 중단 및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힘들게 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보수성향의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는 외국기업의 이란 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협조가 부족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최근 테헤란무역관에서는 광물자원개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IMIDRO를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이란 광물자원 분야 진출 및 투자의지를 설명한 바 있음. IMIDRO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IMIDRO 담당자는 투자희망기업이 먼저 이란투자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가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광물자원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현지 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단독투자에는 많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관측됨.

5. 전력

□ 발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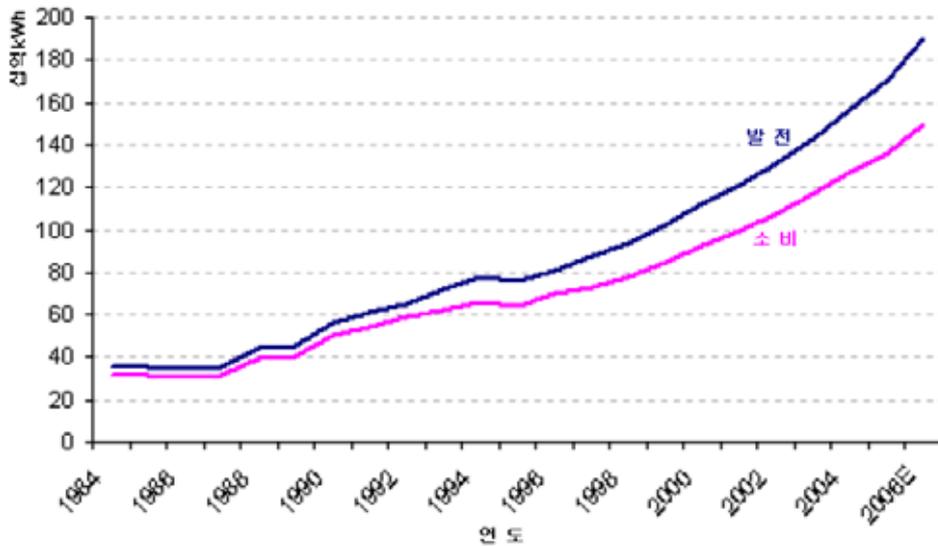
- BMI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이란 발전시설용량은 51GW으로 203TWh의 전력을 생산, 이 중 182TWh가 소비됐음.¹⁹⁾
 - 이란의 발전연료는 주로 가스, 석유, 수력이 주를 차지, 각각 76%, 14%, 10%를 차지함.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등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 이란은 전력수요증가량이 연 7~9%로 전망됨에 따라 설비용량을 연간 약 10%씩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음.
 - 2000년 이후 이란의 발전량은 약 70%, 소비량은 약 60% 증가했음.
 - 이란은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으로 증기터빈 및 가스터빈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이란의 화력발전량은 2008년 기준, 183TWh로 이는 역내 16.6% 수준이나 2013년까지 15.6%로 그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란의 경우 2013년까지 약 25%의 화력발전용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인근국의 발전규모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질 것임.
- 이란은 주로 복합순환과 수력발전을 통해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2007년 후반부터 2008년 초반까지의 심각한 가뭄이 수력발전에 악영향을 주었는데, 하절기 수요 피크 기간 저수지가 말라 수력발전의 거의 70%가 감소했음.
 - 이로 인해 이란이 전력수출 의무량은 고사하고 국내 전력공급 의무량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19) EIA(2009.2)에 따르면, 이란의 2006년 발전은 190TWh, 전력소비는 149TWh로 추산됨. 172TWh는 전통적 화력발전이며, 18TWh는 수력발전(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력과 풍력)발전 포함)임.

□ 전력 소비현황

- 이란의 전력소비량은 최근 10여 년간 매년 약 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기준, 이란의 전력소비 수요는 약 182TWh로 2013년까지 212TWh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의 가장 높은 비중의 전력소비부문은 공업부문으로 전체 전력소비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이란이 탈석유화정책 추진으로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그 다음으로 가정용 전력소비가 32%, 상업용이 18%, 농업용이 12%를 차지함.

[그림 12] 발전 및 전력 소비(1984년~2006년)



출처: EIA International Energy Annual 2007

□ 이란과 인근 국가 간 발전량 비교

- 이란의 발전량은 중동지역 내 약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이라크 등 인근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표 23>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량 추이 및 전망

(단위: TWh)

국가	2006	2007	2008	2009f	2010f	2011f	2012f	2013f
Algeria	35.0	36.7	38.3	41.6	44.3	47.1	50.9	54.5
Angola	2.0	2.2	2.5	2.8	3.2	4.0	5.0	5.8
Bahrain	9.2	9.6	10.0	10.3	10.8	11.2	11.6	12.1
Egypt	110.7	119.0	125.0	126.0	128.5	133.0	140.0	147.7
Iran	183.4	193.3	203.0	205.0	212.2	223.8	236.0	247.8
Iraq	50.0	60.0	70.0	80.0	90.0	100.0	115.0	129.4
Israel	52.8	55.5	58.3	61.2	64.2	67.4	70.8	73.3
Kuwait	40.2	41.5	44.0	44.0	45.0	49.0	52.0	55.1
Libya	25.1	26.9	28.8	30.8	32.9	35.2	37.7	40.3
Nigeria	21.0	23.0	28.0	33.0	40.0	48.0	55.0	60.0
Oman	10.4	10.9	11.5	12.1	12.7	13.3	14.0	14.5
Qatar	15.1	16.3	17.0	18.0	19.5	21.5	24.0	25.8
Saudi Arabia	183.7	190.1	200.0	209.0	216.3	229.0	242.7	258.5
South Africa	249.0	261.5	264.0	262.0	268.0	276.0	284.3	297.1
UAE	66.2	70.8	77.5	78.7	81.0	87.0	94.0	101.1

주: f는 전망치

자료: BMI(KOTRA, 2009.5)

□ 원자력

- 이란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1GW 급의 1호 원자력발전소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부셰르(Bushehr)에 건설될 예정인데, 2010년에 가동개시할 계획임. 러시아는 또한 2005년 초에 체결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있음.

- 이란은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용량을 7GW로 개발할 계획임. UN과 여러 관련 당사자(국)들은 이란의 핵연료 및 기술사용을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음.

□ 천연가스 발전 개발 박차

- 이란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현재 약 28조 입방미터로 세계 2위임. 장차 풍부한 천연가스자원을 활용하고 석유연료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잘 알려진 가스연료 발전소로는 이란 남부의 1.04GW 용량 복합화력 발전소 2기, 아락주의 1.3GW 용량 복합화력발전소, 반다르압바스지역의 1GW 용량 발전소 등이 있음.
- 이란의 천연가스 소비 수요는 2008년 기준, 1,190억 입방미터로 2013년까지 1,480억 입방미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약 27%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 전력시장 동향

- 이란의 미래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함. 에너지부는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량은 2015년까지 6만MW가 되어야 한다고 추산함.
 - BMI는 이란 발전시장이 2008~2018년에 47.3%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2010년부터 원자력 발전의 사용가능 여부가 발전시장 성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이란정부는 2010년, 부쉐르에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공사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서방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임.
- 한편, 이란 정부는 풍력터빈과 태양열 기구, 열교환기와 수력터빈을 생산하고자 하며, 수년 내에 발전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 대열에 올라설 계획임.

- 정부는 또한 예비전력(power reserves)을 26%로 증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각국 기업의 이란 전력시장 진출 동향

○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 현재 이란정부는 자국기업 육성정책을 추진, Tavanir가 발주하는 Bidding Project(EPC)는 모두 국영 EPC업체인 MAPNA가 수주하고 있음.
- * Tavanir : 이란 전역의 발전 및 송배전을 책임짐. 모든 지역전기회사들과 발전회사, 전력망회사들을 관리감독함.
- * MAPNA : 이란의 발전시설을 증설하는 업무를 담당. 현재는 Tavanir의 자회사이지만 민영화될 예정
- 그나마 외국업체가 참여해 수주할 수 있는 Project는 IPP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으며, 이란의 IPP 프로젝트는 BOO의 경우 Tavanir가, BOT는 IPDC가 담당함.
- * IPDC :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주계약자로서 이란 전력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기업들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 Tavanir의 계열회사
- 그러나 실제 성사돼 수행 중인 Project는 매우 제한적으로 그간 발전부문 Project를 밀착 관찰, 지원해 온 일본상사들조차 최근의 이란의 정치와 경제 상황 하에서는 시장을 포기 또는 관망 중임.
- 현지 JV 설립 시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하는 점, 이란산 기자재 사용 강요, 낮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세율은 외국기업의 발전건설 진출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

○ 발전 기자재

- 이란 전력산업 내 경쟁이 심함. 특히 시장부문과 사업자 그룹 내에서 경쟁이 심함. 시장은 주로 큰 사업자들에 의해 주도됨. 큰 사업자들은 고객들이 필요로 할 만한 모든 자문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왔음. 그들은 장기적인 고객관계와 끼워팔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전력산업 외부에서 전력산업으로 시장진입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최근 전력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 이란 전력산업시장에는 오랫동안 문제없이 제품을 판매해 온 유명 브랜드 전기설비회사들이 있음. 이들 각각의 회사들은 전기설비시장에서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옴.
- 전기설비시장은 유명브랜드 회사에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님. 비용과 서비스, 융통성, 경험이 공급업자 선정에 큰 역할을 함.

□ 주요 전력유관기관 및 민영화

- 이란의 전력산업은 완전 국영화돼 있음. 이란 에너지부 산하 Tavanir (이란전력공사)가 모든 전력산업을 관할하고 있고 Tavanir 산하 IPDC(Iran Power Development Co.)가 발전소 건설을 감독하고 있음.
- 이란은 지난 2008년 7월, 10개의 발전소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최근 2009년 3월에는 약 80여 개의 발전소를 민영화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개혁과 용량증강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함. 이를 통해 경쟁의식 함양을 통한 전력산업 발전, 산업의 효율성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제협력

- 이란은 현재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이웃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란에 전력을 공급함.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산업부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및 그루지야 간에 순환전력망 구축에 관한 회담이 열렸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란 Tavanir와 사우디아라비아의 Zenel Company는 아제르바이잔에 1.2GW급 발전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음. 이란은 또한 벨라루스에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6.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격 2배 인상

- 최근 이란정부는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구매가격을 기존 kW당 620리알(약 6.3센트)에서 1,241리알(약 12.5센트)로 인상했음을 발표함.
- 이는 이란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이 분야의 국내외 투자를 더욱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표 24> 이란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WEC 2006)

구분	설치용량(MW)	연간 발전량(GWh/year)
지열	55	410
풍력	47.58	71
태양에너지	53	-
합계	155.58	-

□ 풍력

- 이란에서 풍력 잠재력은 높고 풍력터빈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대체로 충족시킴. 풍력터빈 설치 활성화의 조건은 정치적 의지, 좋은 풍력조건, 이용 가능한 부지, 이용 가능한 전력망 등을 들 수 있음.
-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 및 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란내 풍력 잠재력이 있는 곳은 26개 지역, 45개 부지가 있음. 그 중 일부 지역은 발전에 적합한 풍속이 지속되는 곳이 있음.
- 아래 표에서는 이란 내 여러 부지별 특정 풍력 터빈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이란 내 일부 부지에서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음.

<표 25> 이란의 주요 부지별 설치된 풍력터빈 수와 용량

장소	주	설치된 터빈	
		수	용량(MW)
Rudbar	Gilan	4	2.15
Manjil	Gilan	31	13.25
Paskulan	Gilan	22	14.52
Harzvil	Gilan	12	3.6
Babaian	Gilan	1	0.6
Binalud	Khorasan	20	13.2
Ventis Dizbad	Khorasan	2	0.26
Total	66.2	92	47.58

자료: Ghobadian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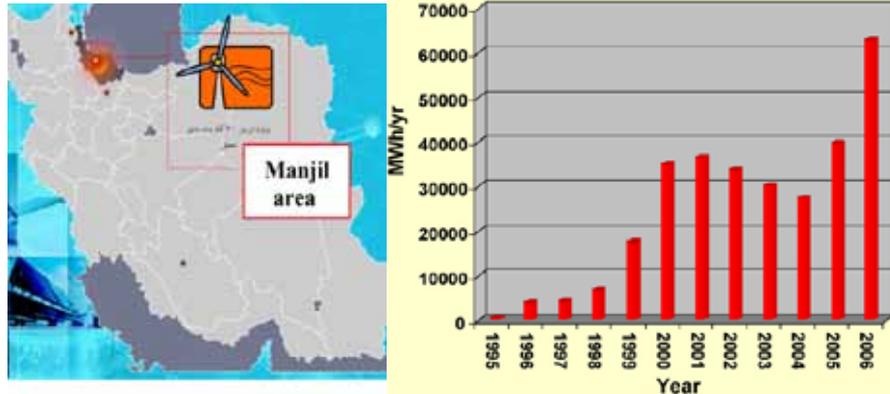
<표 26> 이란 풍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

연도	설치용량	터빈 수	발전량(MWh)
1997	1	2	4,328
1998	3.95	11	6,766.805
1999	9.9	25	17,592.693
2000	10.8	28	35,044.075
2001	10.8	28	26,541.568
2002	10.8	28	33,656.112
2003	11.4	29	30,281.306
2004	16.85	43	27,621.471
2005	24.88	56	46,511.471
2006	47.58	92	70,902.196

자료: Ghobadian 외, 2009.

- 아래 그림은 이란의 최대 풍력발전단지인 만질(Manjil) 위치와 연도별 발전량을 표시하였음.

[그림 13] 이란 만질 풍력단지의 연도별 발전량



자료: Ghobadian 외, 2009.

□ 태양에너지

- 이란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는 일부 대학교와 연구소, 에너지부의 연구센터 등에서 행해지고 있음.

<표 27> 이란의 태양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기술형태	지역	완료여부	용량(kW)	전력망연계
태양광	Semnan	완료	27	비연계
태양광	Yazd	완료	5	비연계
태양광	Semnan	완료	92	비연계
태양광	Yazd	완료	12	비연계
태양광	Tehran	완료	0.45	비연계
태양광	Tehran	완료	-	비연계
태양광	Khorasan	진행중	3.5	비연계
태양열	Fars	진행중	250	비연계
태양열	Tehran	진행중	1,000	비연계
태양광	Tehran	진행중	4.5	비연계

자료: Ghobadian 외, 2009.

□ 지열

- 이란은 북부에 상당한 지열 잠재력이 있음. 북부에는 온천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는 수온이 85℃에 이르는 것도 있음.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은 Sabalan(Booshli), Sehand, Damavand, Maku - Khoy 등의 지역이 발전을 할 만한 곳으로 제안하고 있음.

[그림 14] 이란의 지열에너지 유망 지역



자료: Ghobadian 외, 2009.

- AEOI 재생에너지 연구응용센터 (CRERA-AEOI)와 에너지부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Sabalan의 Meshkinshahr를 첫 탐사시추지로 선정하였음. 그 지방 온천 중 최고 수온은 83.5℃임.
 - 한 이탈리아인이 수행한 조사에서 지열온도측정이 시도되었는데, 최대 근사치는 심층에서 150℃가 넘었음. 유사한 조사에서 10곳 이상의 지역이 지열에너지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 이란은 전력소비증가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연간 3GW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래 재생에너지 특히, 지열에너지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열에너지는 이란의 신뢰할만한 청정에너지 이용에 있어 경제성 있는 선택으로 남을 것임.

Ⅵ. 이란 에너지 및 투자 관련 웹사이트

1. 이란 에너지정보 사이트

일반

- EIA <http://www.eia.doe.gov>
- IAEE <http://www.iaee.org>
- NETL <http://www.netl.doe.gov>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Energy_in_Iran

석유가스 부문

- OPEC <http://www.opec.org/aboutus/member%20countries/iran.htm>
- Ministry of Petroleum <http://www.mop.ir>
- National Iranian Oil Company(NIOC) <http://www.nioc.ir>
- NIOC 산하기관 http://www.nioc.ir/English/sub_Companies
- NIOC International Affairs <http://www.nioc-intl.com>
- National Iranian Drilling Company(NIDC) <http://www.nidc.ir>
- National Iranian Gas Company(NIGC) <http://www.nigc.ir>
- National Iranian Gas Export Company(NIGEC) <http://www.nigec.ir>
- National Iranian South Oil Company(NISOC) <http://www.nisoc.ir>
- Association of Petroleum Engineers & Constructors <http://www.irapec.com>
- National Iranian Oil Refining and Distribution Company(NIORDC) <http://www.niopdc.ir>

- National Iranian Oi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http://nioec.org>
- Iranian Central Oil Fields Company <http://www.icofc.org>
- Oil Exploration Service Company <http://www.oes.co.ir>
- Pars Oil & Gas Company(POGC) <http://www.pogc.ir>
- Pars Special Economic Energy Zone company <http://www.pseez.ir>
- Iranian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 <http://www.iraee.org>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nergy Studies <http://www.iies.org>
- Petroleum Act <http://www.alaviandassociates.com/documents/petroleum.pdf>
- Barrows Compay(Subscription Service) <http://www.barrowscompany.com>

전력 부문

- Ministry of Energy(Water and Power) <http://www.moe.org.ir>
-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AEOI) <http://www.aei.org.ir>
- Energy Strategic Research Center <http://www.energysrc.com>
- Farab Hydro Power <http://www.farab.com>
- Niroo Research Institute <http://www.nri.ac.ir>
- Tavanir <http://www.tavanir.org.ir/farsi>
- Valve World <http://www.valve-world.net/research/ShowPage.aspx?pageID=235>

2. 이란 투자 관련 사이트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co.kr>
- 주이란 대사관 <http://irn.mofat.go.kr/>
- KOTRA GlobalWindow <http://www.globalwindow.org/>
- 이란 외교부 <http://www.mfa.gov.ir>
- 이란무역진흥기관 <http://www.tpo.ir>
- 이란 투자청 <http://www.oietai.org>
- 이란 상공회의소 <http://www.iran-investment.org>
- 이란 중소기업청 <http://www.iraniec.ir>
- Kish Free Zone Organization <http://www.kish.ir>
- Anzail Free Trade Zone <http://www.anzali-fz.org>

3. 이란 관련 뉴스 제공 사이트

- 더내셔널 <http://www.thenational.ae>
- 뷰스라이어 <http://viewswire.eiu.com>
- 아르나통신 www.irna.ir/en
- 이란데일리 <http://www.iran-daily.com>
- 이란포커스 <http://www.iranfocus.com>
- 자우야닷컴 <http://www.zawya.com>
- 주이란 대사관 <http://irn.mofat.go.kr>
- 테헤란타임스 www.tehrantimes.com

참고 문헌

- 박복영,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7.25.
-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의 대이란 제재전략과 대화 병행추진 여건 악화", 해외에너지정책동향, 2009.9.18.
- 인남식, "이란 대통령 선거와 중동 정세", 주간 석유뉴스 통권 제1447호, 한국 석유공사, 2009.7.29.
- 임진호, "이란 대선 이후 정국 동향과 향후 전망", 수출보험, 한국수출보험공사, 2009.7.8.
- 한국석유공사, "이란의 가스 및 석유산업 동향(상)", 2008.12.10.
- _____, "이란의 가스 및 석유산업 동향(하)", 2008.12.17.
- 한국수출입은행, "이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국별 리포트, 2009.3.
- KOTRA, "[자원정보] 이란의 자원보유 현황", 2009.5.18.
- _____, "국가별 통합정보: 이란", 2009.
- _____, "이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패키지안 준비 중", 2009.3.16.
- _____, "이란, 전력시장 전망", 2009.5.30.
- _____, "이란의 유망산업", 2008.12.
- CIA, "The World Factbook", 2009.5.
- EIA, "Country Analysis Briefs: Iran", 2009.2.
- Ghobadian, B., G. Najafi, H. Rahimi, T.F. Yusaf, "Future of renewable energies in Iran",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3, 2009.
- Katzman, K., "The Iran Sanctions Act(ISA)",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4.14.
- Parsi, T., "TO TALK TO SACNTION - OBAMA's IRAN DILEMA", National Iranian American Council, 2009.9
- Rakel, E.P., "The energy policy of Iran towards the EU and China", The Focus: Energy Security EU/Asia, 2008.
- Zabbah, L., "Investment Challenges in Iranian Oil & Gas Sectors? A Legal Approach", IIES, 2007.

주이란 대사관 <http://irn.mofat.go.kr/>
뷰스라이어 <http://viewswire.eiu.com>
이란데일리 <http://www.iran-daily.com>
이란포커스 <http://www.iranfocus.com>
자우야닷컴 <http://www.zawya.com>
주이란 대사관 http://irn.mofat.go.kr
테헤란타임스 <http://www.tehrantimes.com>

Country Profile ①9

- 이란 -

발 행 /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 방 기 열
편집인 / 박 찬 국 · 김 미 애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시장연구실에 의하여 작성 · 편집된다.

437-711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 화 : 031-420-2273
팩 스 : 031-420-2164
<http://www.keei.re.kr>
인 쇄 : 범 신 사(02-503-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